Optic Weekly

Since 1993

www.opticweekly.com

ABC 부수인증매체 한국ABC협회

안경은 무조건 편해야 한다! 주간 옵틱위클리 2026년 3월 15일 발행 (388호)

05 ISSUE

최근 국내 안경시장에 중국산 아크릴 렌즈의 판매가 증가하면서 국민의 눈 건강과 안경 객단가 하락이 불가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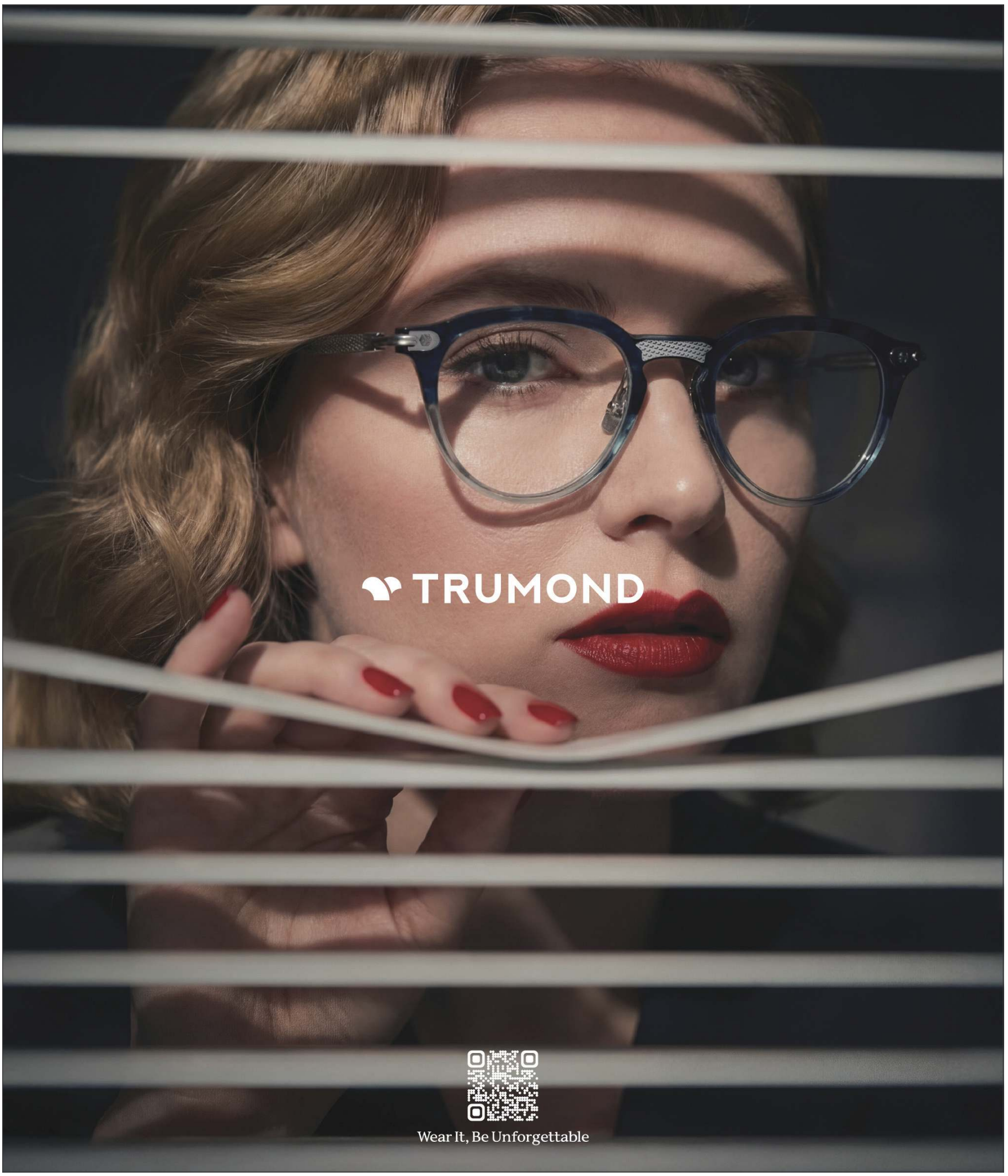
08 NEWS IN NEWS

대안협의 건의를 통해 환경부가 빛공해 측정 전문 인력의 전공 학과에 국내 안경광학과를 공식 포함시킨다는 뜻을 밝혀 주목받고 있다.

기사 제보 및 기고 문의

대 상 | 전국 안경사 및 업계 관계자
내 용 | 안경업계와 관련된 모든 내용
메 일 | Opticweekly@naver.com






TOKAI
선명함과 넓은 시야 차세대 렌즈
HR EVENT
이벤트 기간 : 2026년 2월 1일 ~ 3월 31일
소비자가 인정한 편안함과 만족도
착용감 94%
선명도 95%
두께 95%
이벤트 자세히 보기
※ 본 설문조사는 총 300명의 기존 안경을 착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설문 항목에 대한 평가는 1점(매우 불만족)부터 5점(매우 만족)까지의 기준으로 수집되었습니다.

케미 안경 렌즈

카카오톡에서 케미렌즈 채널 추가하고, 이벤트와 제품정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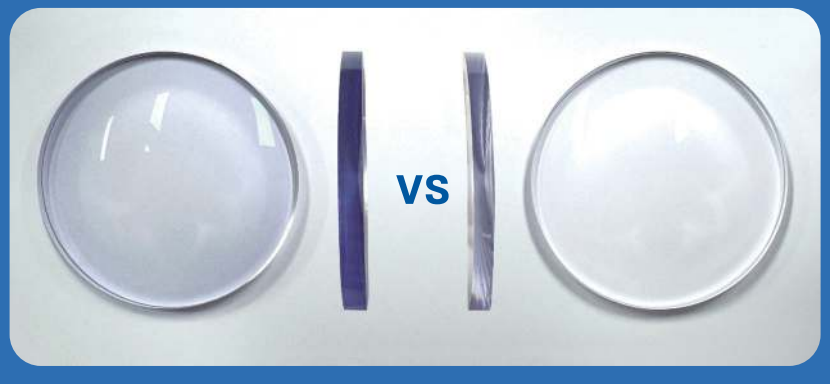


기능은 그대로,
투명도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

케미 D-FREE PUV CLEAR 1.74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

차원이 다른 투명함



기존 D-FREE PUV

D-FREE PUV CLEAR

- 높은 시감 투과율을 통해 더 투명한 시야 제공
- 양면 비구면 설계
- 맑은 시야의 방해요소 수차의 최소화
- 자외선 UV 차단 + 블루 라이트 차단

※ 위 이미지는 촬영 조명과 주변 환경에 따라 실제와 다르게 보일 수 있으며, 또한, 도수와 사용 조건에 따라 착용 시 느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추천드려요!

- 자외선이나 블루 라이트 노출이 많은 환경에서 작업하거나 생활하는 분
- 장시간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등을 사용하는 분
- 얇고 가벼운 렌즈를 원하는 분
- 주변부 시야 왜곡이 적은 렌즈를 원하는 분

www.chemilens.co.kr

특허등록번호
10-2342017
항균코팅
황색포도상구균 99.9% 차단
녹농균 99.9% 차단

중굴절
UV블루라이트 차단
420렌즈 사용!

since 1984
Guardian



야간운전과 골프장에서 최고 성능을 자랑하는 **'가디안'**

항균 처리로 눈 건강까지 지킵니다!

가디안렌즈 진품 구별법

- ☑ 안경렌즈에 표시된 입김마크 'Guardian'을 확인하세요.
- ☑ 빨간색의 항균 스티커를 확인하세요.
- ☑ 안경렌즈 봉투에 적힌 'Guardian 가디안' 브랜드를 확인하세요.

가디안렌즈의 항균 코팅 처리… 유사품에 속지 마세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

- 녹농균/황색포도상구균 99.9% 차단
  -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 검사 통과 (특허등록번호 10-2342017)

안경렌즈 한 장도 철저하게 검사!

- 가디안 항균렌즈는 낱벌도 개인맞춤으로 생산합니다.
- 가디안 항균렌즈는 봉투에 출고날짜를 표기하며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 가디안 항균렌즈는 평면(PL)만 여벌 공급합니다.

생산범위

- 야간 운전용 항균렌즈 Y2
- 골프 전용 항균렌즈 K3
- UV 청광 화이트 항균렌즈

Optic Weekly
Since 1993
www.opticweekly.com
안경은 무조건 편해야 한다! 주간 옵틱위클리 2026년 3월 15일 발행 (388호)
ABC 부수인증매체 한국ABC협회

EIN
www.ahinkorea.com
1박스도 전국 무료배송
주문 전화 031)987-9173
EDP 01 18(W)×24(H) mm
EDP 02 24(H)×24(W) mm
EDP 05 18(W)×18(H) mm

니시무라 안경공구 한국총판
취급품목 : 니시무라 공구 및 소모품, 니시무라 검안 관련품, 변색+편광 세미렌즈, 연마용 청테이프(일제)
키에스 상사
010-4289-4649
주소 : 서울 중구 소월로 16, 3층



슬쩍 나타난 '아크릴 렌즈'… 국민과 안경원엔 백해무익

국민의 눈 건강 훼손하는 광학 안정성 불량품 '중국산 아크릴 렌즈'… 안경원에 실익도 없고 국내 제조 생태계까지 훼손

국내 안경렌즈 시장에 중국산 아크릴 렌즈가 급속 확산하고 있다. 국내 안경사의 유일한 업권인 안경렌즈에 갑자기 어린이 장난감 선글라스에 쓰이는 아크릴 렌즈가 유통·침투되면서 국민의 눈 건강과 안경원의 정상 영업을 훼손하고 있는 것.

중국산 아크릴 렌즈는 최근 도수범위도 1.60렌즈는 평면부터 -400 ~ -600까지, 1.67렌즈는 -200에서 -800까지 폭넓게 수입되어 안경의 객단가까지 추락시키고 있다. 가뜩이나 불경기로 힘든 안경원에 중국산 아크릴 렌즈가 오히려 정상 경영을 가로막는 것이다. 국내 안경원에 이처럼 아크릴 렌즈가 확산하는 이유는 첨예한 가격경쟁으로 정상 경영이 어려운 일부 도매업체들이 적자 개선을 위해 수입·유통한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내 안경시장에 중국산 아크릴 렌즈가 대거 수입·유통되면서 이에 대한 안경업계 차원의 강력하고 시급한 대응이 절실해지고 있다.

상점 광고판에 쓰이는 공산품 소재가 '아크릴'

근래 국내 안경원에 유통되는 중국산 아크릴 렌즈는 안경업계 전체에 심각한 충격파를 던질 위험성이 크다. 안경원 입장에서는 아크릴 렌즈의 판매가 실익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눈 건강을 위협할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만약 중국산 아크릴 렌즈가 국민 눈 건강에 위해를 준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안경사의 신뢰도는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원래 중국산 아크릴 렌즈는 시력을 보정하는 광학용이 아닌 일반 광고판이나 인테리어 소품 등에 쓰이는 소재다. 아크릴 렌즈는 소재 특성상 ▶열에 약해 조금만 열을 받아도 왜곡 현상이 일어나 시력 보정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고온에서 독성을 배출하며 ▶빛이 균일하게 굴절되지 않아 산란을 일으켜 눈을 쉽게 피로하거나 난시의 원인이 되고 ▶낮은 아베수의 불량한 광학적 특징으로 시력 저하를 일으키고 ▶자외선(UV)을 차단하지 못해 백내장이나 황반변성 등 안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수지 렌즈보다 경도가 낮아 쉽게 긁히는 등 저조한 내구성으로 빛 번짐을 유발해 망막에 맺히는 상의 선명도를 떨어뜨린다.

결국 아크릴 렌즈는 중국에서 싸구려 돋보기나 어린이 장난감 선글라스 등에 종종 쓰이는, 시력 보정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렌즈다. 더구나 국내에서 유통되는 CR-39 렌즈의 소비자가격이 세계 최저가인 상황에서 굳이 아크릴 렌즈가 돌아다니는 것은 일부 유통업체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학계, '아크릴 렌즈는 시력용으로 부적합'

백석대학교의 김효진 교수는 "안경렌즈는 단순히 투명한 플라스틱 제품이 아닌 정확한 굴절력과 광학적 균일성(optical homogeneity)을 요구하는 정밀 광학제품이어야 한다"며 "그러나 PMMA 등 아크릴계 플라스틱 렌즈는 굴절률이 약 1.49 수준의 가공이 쉽고 생산비가 낮아 일부 저가격 렌즈에 사용하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되는 CR-39 등의 소재와 비교할 때 광학적 안정성이나 내구성 측면에서 심각한 차이가 있어 렌즈의 사용 목적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안경광학과교수협의회의 임현성 회장(을지대)은 "최근 국내 안경시장에 중국산 저가 아크릴 렌즈가 유통된다는 소식에 크게 우려한다"며 "안경렌즈는 단순한 소비재가 아닌 국민의 시력과 눈 건강을 책임지는 필수 의료·보건용품으로써 가격보다는 국민 안 보건 차원에서 점검해야 할 주요 의료기기"라고 강조했다.

대전의 한 안경렌즈 생산업체의 고위 관계자는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저가 아크릴 렌즈를 유통하는 행위는 국내 안경 제조 생태계를 위협하고, 안경사를 믿고 시력을 보정하는 소비자들에게 장기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친다"며 "최일선에서 국민 눈 건강을 지키는 안경사들께서는 중국산 저질 아크릴 렌즈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아크릴 렌즈' 유통 철저하게 막아야

서울 마포구의 한 안경원 원장은 "최근 안경시장에 아크릴 렌즈 유통이 대두되고 있는데, 만약 중국산 아크릴 렌즈를 사용해 국민 눈 건강을 헤치는 사실이 알려지면 큰일"이라고 전했다. 경기도 수원시의 한 안경원 원장은 "아크릴 렌즈가 조당 1천원 싸게 유통된다면 결국 안경원도 덩달아 소비자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결국 수입하는 업체 이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아크릴 렌즈는 안경원에 백해무익한 렌즈"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아크릴 렌즈를 유통하는 행위는 국내 안경업계 전체를 망가트리는 것으로 협회는 유통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국무역협회(KITA)의 '중국산 안경렌즈 수입 통계'에 따르면, 2021년 3,995만 달러(약 585억원)였던 것이 2024년엔 4,450만달러(약 652억원)로 3년만에 10.2%나 증가했다. 더욱이 지난해 상반기에만 24년의 전체 수입량을 상회하는 5,213만달러(약 764억원)를 기록해 이 같은 추세라면 사상 최대치인 1억달러(약 1,465억원)를 넘어설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 특별취재반

美 상호관세 무효화… 안경업계 대응은?

미 연방대법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무효 판결… 韓 안경업계, 관세 환급 기대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제동을 걸면서 향후 국내 안경업계에 미칠 영향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0일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초부터 시행된 총 2천억달러(약 289조원)에 달하는 징수액을 기록한 IEEPA의 효력을 무력화했다. 따라서 국내 안경업계는 ▶수출 단가의 인하 효과 ▶중장기적인 수익성 개선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는데, 특히 지난해 4월 이후 해당 법에 따라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 것은 안경업계에 실질적인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안경테 및 선글라스 수출은 소규모 다품종 발주가 많아 누적된 관세 합계가 상당할 수 있기에, 대구지역의 안경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공동 대응을 통해 환급 절차를 밟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분석된다.


워싱턴 D.C.에 소재한 미국 연방대법원 전경.

대구3공단의 한 안경수출업체 대표는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의 향후 지침을 주시하고, IEEPA를 근거로 납부한 관세 영수증과 수출입 서류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자사는 관세가 일시적으로 낮아지는 공백을 이용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비치안경, 새 학기 맞아 대박 프로모션

학생 • 직장인 • 군인 대상으로 럭키 찬스 이벤트… 안경테 • 청광 차단렌즈 완벽 구성

㈜다비치안경체인이 새 학기를 맞아 지난 1일부터 전국 300여 안경원에서 '새학기 LUCKY CHANCE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이번 행사는 새 학기에 안경과 콘택트렌즈 이벤트를 찾는 소비자들을 위해 블루라이트 차단렌즈 혜택, 아큐브•알콘 콘택트렌즈 증정 및 할인, 국군 대상의 안경 할인 등으로 완벽하게 구성됐다.



먼저 다비치안경은 디지털 기기 사용이 많은 학생과 직장인을 위한 블루라이트 차단렌즈를 할인 제공하는데, 알코 블루라이트 차단렌즈는 5천원 할인, 에실로 다비젠블루라이트 차단 옵션은 무료 제공한다. 이와 함께 다비치는 호야 블루라이트 차단렌즈 구매 고객을 위한 새 학기 경품 이벤트도 마련됐다. 이 렌즈를 구매하면 경품에 자동 응모되어 추첨을 통해 ▶아이패드 256GB(1명), ▶애플워치 SE3(3명), ▶갤럭시 버즈3(10명), ▶네이버페이 포인트 2만원 기프티콘(50명) 등 학생 고객을 위한 경품을 제공한다.

콘택트렌즈도 이번 행사에 함께 진행된다. 다비치는 아큐브 오아시스와 오아시스 MAX 전 제품(근시•난시•멀티포컬)을 대상으로 대용량 2팩 구매 시 소용량 2팩 추가 증정 이벤트를 실시하고, 이와 함께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PAYCO 포인트로 3만원 이상 결제 시 3% 할인(최대 1만원) 혜택을 진행한다.

다비치안경의 관계자는 "자사는 새 학기를 맞아 난시렌즈부터 블루라이트 차단렌즈, 콘택트렌즈까지 소비자의 눈 건강을 돕는 새 학기 맞춤 혜택을 구성 준비했다"고 전했다.

문의 02)752-6177

눈이 너무 편안하다 – 토카이 HR 시리즈

중심와 고려한 독자적인 내면 • 양면비구면 시축 설계로 시야 쾌청

토카이렌즈㈜(대표 김형진)의 HR 시리즈 렌즈가 국내 안경시장에서 독보적인 광학 설계로 높은 선명도와 넓은 시야를 제공하며 우수 평가를 받고 있다.

HR 시리즈의 가장 큰 특징은 망막에서 시력이 가장 높은 부위인 중심와(fovea)를 고려한 시축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광학 수차가 시야에 영향을 적게 미치어 선명도가 향상되고, 보다 넓게 안정적인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같은 차별화된 설계는 실제 착용 시 선명한 시야와 편안한 시각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HR 시리즈는 내면비구면 설계와 양면비구면 설계로 각각의 렌즈는 세분화된 타입으로 나뉘어 개인별 시력 조건과 사용 환경에 맞춘 선택이 가능하다. 즉 렌즈 두께와 시야 선명도, 주변부 왜곡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적합한 설계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 맞춤형 렌즈로 눈 건강 솔루션을 제공한다.

토카이의 관계자는 "HR 시리즈는 단순히 도수를 교정하는 것을 뛰어넘어 실제 착용 환경에서 시야 품질과 편안함을 고려해 설계된 최상급 렌즈"라며 "특히 HR 시리즈는 사용자의 시각 특성과 생활 환경에 맞춰 다양한 설계 옵션으로 보다 선명하고 안정적인 시야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토카이는 독자적인 광학 설계 기술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최고 기능의 렌즈를 계속 연구 개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02)337-8666

안경사 처방 사례 특별 공모전

케미렌즈, 유튜브 • 블로그 운영 안경사의 처방 및 홍보 사례 3월까지 공모 진행

㈜케미그라스(대표 반경민)에서 안경사 대상의 특별 공모전을 마련했다. 이번 '케미렌즈 처방 및 홍보 인사이트 사례 공모전'은 온라인 채널을 운영하는 안경사들이 직접 경험한 처방 사례와 홍보 전략을 공모해 업계 전반의 디지털 홍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는데, 수상작은 4월 초에 발표된다. 또 참가 대상은 유튜브, 블로그 등 온라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안경사로서 개인 채널에 콘텐츠를 업로드한 뒤 해당 URL을 접수하면 된다.



회사의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안경사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얻은 처방 경험과 온라인 홍보 인사이트를 공유해 소비자에게 보다 더 효과적으로 렌즈 정보를 전달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최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소통이 점점 중요해지는 요즈음 이번 공모전이 업계의 새로운 홍보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그는 "이번 공모전은 단순한 사례 발표를 넘어 안경사들의 창의적인 콘텐츠 제작 역량을 발휘하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향후 안경업계의 온라인 마케팅 방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055)387-3030

社 說

단체 사업은 열정보다 영속성이 중요

▶역사의 전환기에 대처를 잘하면 선진 대국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 열등 국가가 된다는 것은 동서고금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흔히 영웅은 백 사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데, 특히 통솔력과 기획력이 뛰어나면 비범한 인물로 꼽는다. 다만 난세의 영웅도 후계자를 어떤 인물로 세웠느냐에 따라 후세 평가가 달라진다.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으로 재평가받는 이승만 대통령은 농지개혁과 여성의 참정권 부여 등 큰 업적을 이루었다. 그 반면에 이기붕이라는 후계자를 잘못 세워 불명예 퇴임하는 불운을 겪었다. 이에 반해 동시대에 일본 패전 후 수상에 오른 요시다 시게루 수상은 후계자를 잘 양성해 존경받고 있다. 요시다 수상은 취임 직후부터 젊은 중의원과 참의원, 교수진, 정부의 사무차관 등 자신이 고른 젊은 인재 15명과 매주 토요일마다 조찬 모임을 갖고 국내외 정세는 물론 사회 각 분야의 쟁점을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후일 이 모임은 '시게다 정치학교' '토요학교'로 불렸는데, 이 조찬 모임은 수상 퇴임 때까지 지속되었다.

훗날 이 모임의 일원으로 수상에 오른 인물은 제58, 59, 60대 내각총리를 지낸 이케다 하야토. 제64, 65대 내각총리였던 다나카 카쿠에이, 제68, 69대 내각총리를 역임한 오히라 마사요시 등이다. 이들 젊은 인재들이 매주 시게다 정치학교에서 국내외 정세를 논하며 키운 역량이 오늘날 일본을 경제대국으로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

▶국가든 단체든 개인이든 소기의 목표를 이루려면 영속성이 중요하다. 특히 단체의 지도부가 바뀌었다고 그동안 추진하던 사업이 중단되면 아무것도 이룩할 수 없다. 국가나 단체 모두 변화에 적응하며 영속적으로 추진해야 목적을 달성한다. 더구나 회원이 주인인 단체의 사업은 회원들 미래 대비에 머리를 싸매고 달려들어야 한다.

최근 안경사협회가 안경의 의료보험화를 위해 모임을 가졌다. 상설 모임인지 번개 모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 같은 사업이 특정 부류에 한정되면 그 취지가 훼손되고 사업 동력이 떨어진다. 더구나 안경의 의료보험화는 1989년 안경사제도가 도입된 직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특히 제16대 윤효찬 회장 때인 2007년에는 협회의 의뢰로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서 '안경조제수'를 3만1천원으로 책정했다. 이후 무려 지난 20년간 집행부에 따라 들쭉날쭉 엿장수 마음대로 튀어나오는 단골메뉴가 안경의 의료보험이니 회원들 관심받기도 부족하다.

▶단체의 사업은 열정보다 영속성을 가져야 한다. 안경사협회는 그동안 제기된 문제들, 즉 안경사의 타각적 굴절검사 허용 건, 국가의 안경지원 건, 콘택트렌즈의 가격정상화 건, 안경원의 가격경쟁 방지 건, 안경 부대용품 유료화 건, 라식수술 대응 건, 어린이 근시억제 렌즈 활용 건, 안경 온라인 금지 건 등등 각각 비상근 위원회 등을 설치해 집행부의 진퇴와 상관없이 지속 추진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집행부 입맛에 따라 창고에 넣었다 뺏다를 반복하면 바람 빠진 풍선 모습이 된다.

안경사 회원을 위한 협회의 제 사업이 부디 영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 허선



'스마트폰 다음 주자는 AR 글라스!'

증강현실(AR) 글라스가 '포스트 스마트폰'으로 주목받으며 그 비중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2026년 AR 글라스의 출하량은 95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에 비해 55% 가량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과 웨어러블 기기의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시장 수요가 당초 예상을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 같은 흐름으로 삼성디스플레이•LG디스플레이 등 국내 대표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차세대 기술을 앞세워 이를 주도할 준비에 여념이 없다. 특히 LG디스플레이는 대형 액정표시장치(LCD) 사업을 정리한 공간과 설비를 올레도스(OLEDos)와 레도스(LEDoS) 연구개발과 양산 라인으로 전환, 원천기술 확보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허 출원

양면 비구면 특허 제10-1879359호
양면 비구면 특허 제10-2222850호

NEW 1.60 DAS

1.60 양면 비구면 싱글비전 렌즈 출시!

정밀한 설계로 탄생한 신제품, **1.60 양면비구면 싱글비젼 렌즈**가
한미스위스광학(주)의 기술로 새롭게 완성되었습니다.







www.hslens.co.kr

안경사, '빛공해 전문 인력'에 취업 가능하다

환경부, 대안협과 간담회서 취업 가능 답변… 시행규칙에 '안경광학' 포함 의견 제시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허봉현)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간담회를 통해 안경광학 분야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에서 빛공해 측정 전문 인력에 포함되는 점을 재차 확인받았다.

지난달 25일 대안협 변효섭 사업부회장, 이형균 홍보부회장, 백석대학교 김세진 교수 등은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의 박민윤 사무관 등과 간담회를 갖고 빛공해 전문 인력 기준과 안경광학의 제도적 위치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그동안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에서 빛 방사 허용 기준의 준수 여부를 검사하는 전문기관의 기술인력 요건으로 환경공학, 건축학, 기계공학, 전기·전자공학, 물리학 등 일부 전공 분야만 명시되어 있었으나 이번에 빛의 물리적 특성과 시각 환경을 전문으로 다루는 안경광학 분야의 참여가 공식 거론된 것.



환 경 부

수신 (사)대한안경사협회장 귀하
(경유)
제목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개정건의에 대한 회신

○ 안녕하십니까? 귀 협회에서 건의하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개정건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귀 협회에서 건의하신 내용은 학교 안경광학과에서 빛공해 관련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으니,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법'), 시행규칙 [별표2] 제2호의 비고란 '빛공해 관련 분야'에 안경광학과를 포함시켜 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법')」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사하기 위하여 검사기관을 지정 할 수 있으며, 법 시행규칙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에서 장비, 기술인력 등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 [별표2] 기술인력 요건에서 '빛공해 관련 분야'를 환경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기계공학, 물리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등 빛공해와 빛환경에 관련된 분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빛공해와 빛환경 관련 분야의 교육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하였다면 안경광학도 빛공해 관련 분야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환경부 생활환경과 도태용 주무관(044-201-679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련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문 중 일부.

그동안 협회는 안경광학이 빛의 측정과 시환경 분석, 광학적 특성 이해 등 빛공해 관리와 밀접한 학문적 연관을 갖추고 있음에도 제도상 명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날 박민윤 사무관은 "안경광학 분야도 빛공해 및 빛환경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전공으로 볼 수 있다"며 "우리 환경부의 관련 공문을 근거로 검사기관이나 관련 업체의 취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추후 시행규칙 개정 시에 해당 법에 안경광학을 전공 학과로 명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안경사 업무 빛공해 분야까지 확장

이에 따라 지금 현재도 공문에 근거해 관련 업무의 참여가 가능한데, 추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안경광학이 명시되면 그 법적 근거는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안경사의 업무영역이 기존의 안경원, 안과, 안경업계 등을 넘어 환경·빛공해 관리 영역까지 확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르면, 빛공해 관련 분야 학위 취득자는 박사학위의 경우 별도의 경력 없이 전문 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는데, 석사학위는 1년 이상, 학사학위는 3년 이상의 해당 분야 실무경력을 갖추면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반면에 관련 분야가 아닌 자는 박사 1년 이상, 석사 3년 이상, 학사 5년 이상, 전문학사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동일 학위인 경우 관련 전공 여부에 따라 요구 경력이 달라지는 기준이다.

대안협의 이형균 홍보부회장은 "환경부와의 공식 협의를 통해 안경광학 전공자의 전문성이 빛공해 관리 분야에서도 제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이 매우 뜻깊다"며 "현재 빛공해 분야는 실외에 국한되어 있으나 향후 실내뿐 아니라 특정 조건에 따른 세부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이며, 시각조명관리사 자격과 같은 업무도 안경사의 기본적인 역할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02)756-1001

스마트폰 다음은 '스마트글라스'

스페인 MWC26서 스마트글라스 향연… 차세대 AI 기기로 위치 확고

모바일과 관련한 세계 최대의 박람회 '모바일월드콩그레스 2026(MWC26)'이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피라 그란비아 전시장에서 펼쳐졌다. '모바일'을 전제한 전시회지만 이번 행사에 참가한 2,900여 이상의 기업 중 상당수가 인공지능(AI) 스마트글라스를 선보여 남다른 눈길을 끌었다. 이는 스마트폰 시장이 점차 포화상태에 이르는 속에서 스마트글라스가 차세대 핵심 AI 기기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메타는 레이밴 브랜드의 스마트글라스를 공개하는 체험 부스를 전시장 입구 광장에 설치해 참관객들이 장시간 대기하기도 했다. 또한 중국의 알리바바를 비롯해 iFLYTEK, 로키드, TCL, 샤오미, 화웨이 등 다양한 제조업체들이 자사의 스마트글라스를 선보였다. 삼성전자 역시 지난해 10월 첫선을 보인 확장현실(XR) 헤드셋 갤럭시 XR을 이번 MWC26에선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출품했다.

삼성의 차세대 XR 헤드셋인 갤럭시 XR은 멀티모달 AI 플랫폼에 최적화되어 실제와 같은 몰입형 경험을 시연해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이번 MWC2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XR 분야의 추세는 이제 가상현실(VR) 헤드셋에서 확장현실(AR) 및 AI 글라스로 옮겨가는 중이다. 이에 발맞춰 삼성은 부스 내에 '당신의 시선을 멈춰보세요'라는 대형 입간판을 설치해 조만간 새로운 스마트글라스를 선보일 것을 암시하기도 했다.

한편 미국의 시장조사업체인 제이디파워는 지난달 초 올해 미국에서만 1천만 대 이상의 스마트글라스가 출하될 것이란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중 메타가 약 82%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며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표절 분쟁 '블루엘리펀트' 입장문 발표

경영진 쇄신과 법적 책임 감수… 한편으론 '안경 특수해 법리 적용 무리' 주장



한국의 대표적인 아이웨어 브랜드 젠틀몬스터의 운영사 ㈜아이아이컴바인드의 안경 등을 모방한 혐의로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블루엘리펀트가 지난달 27일 공식 입장문을 냈다.

블루엘리펀트는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며 파격적인 쇄신안과 젠틀몬스터 관련 법적 견해 등을 밝혔다. 이를 통해 블루엘리펀트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가 인정될 경우 이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지만, 안경의 인체공학 구조상 필연적인 유사성은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경영진의 대대적인 교체를 밝힌 블루 엘리펀트는 구속된 최진우 대표이사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유인철 최고재무책임자(CFO)와 고경민 최고법률책임자(CRO)를 공동대표로 선임했다. 또한 고소 이후 논란이 된 제품은 즉시 판매 중단하고, 향후 디자인 교차 검증을 위해 외부 변리사가 참여하는 IP 컴플라이언스 체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블루 엘리펀트는 이번 사태는 '등록 디자인권' 침해가 아니라 미등록 상품의 형태를 모방했는지 따지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법리 다툼으로써 안경 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법리적 쟁점을 강조했다. 안경의 특성상 인체공학 구조로 필연적으로 유사한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기에 과도한 차별화와 독창성을 위해 소비자에게 기능적 불편함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을 호소했다. 블루엘리펀트사는 이와 함께 지난해 매출의 2%였던 연구개발 예산을 올해 3%로 늘리고, 디자인 전문 인력 19명을 확보해 독자 디자인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는 등 R&D 투자 확대 계획을 밝혔다.

한편 지난달 13일 대전지방법원은 젠틀몬스터의 디자인 권리를 무단 침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블루엘리펀트의 최진우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녹내장, 앞으론 AI가 사전에 예측한다

가천대 길병원 안과 신영인 교수팀… 녹내장 발생 위험 예측 모델 개발

망막질환 치료의 핵심 수술인 유리체절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녹내장 위험을 인공지능(AI)으로 사전 예측하는 새로운 방법이 개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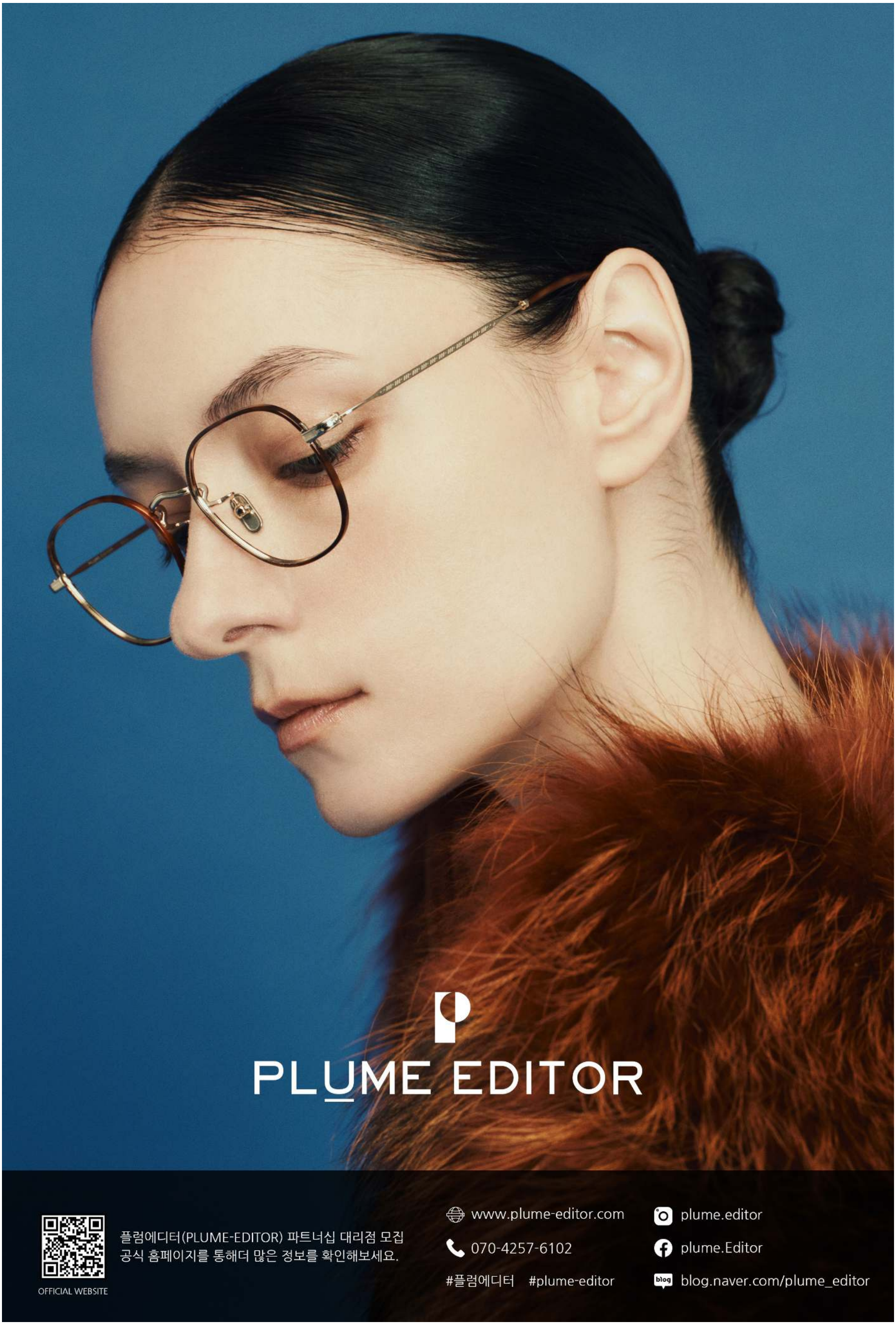
지난달 27일 가천대 길병원 안과 신영인 교수 연구팀은 기계학습 기반의 녹내장 발생 위험 예측 모델을 개발했는데, 이는 수술 전·후 임상 데이터와 영상 정보를 통합해 고위험군을 사전에 선별하는 방식이다. 연구팀은 대규모 임상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다양한 임상 변수와 수술 관련 인자를 분석했다.

해당 모델은 고위험군 조기 모니터링 전략 수립과 맞춤형 추적 관찰 간격 설정, 선제적 치료 개입 가능성을 제시했고, 수술 환자의 장기적 시력 보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상적 의의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연구팀의 신영인 교수는 "이번 연구는 임상 안과와 AI 공학의 협력을 통해 실제 적용 가능한 예측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향후 외부 코호트를 통한 검증과 임상 적용 가능성 평가를 통해 정밀의료 기반 녹내장 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규모의 안과 학술대회인 제41회 아시아태평양안과학회(APAO)에서 우수 포스터상을 수상했다. 문의 1577-2299



OFFICIAL WEBSITE

플럼에디터(PLUME-EDITOR) 파트너십 대리점 모집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www.plume-editor.com
070-4257-6102
#플럼에디터 #plume-editor

plume.editor
plume.Editor
blog.naver.com/plume_editor

일본 안경원과 보청기 시장①

일본 안경원의 '보청기 사랑'… '시각과 청각' 쌍끌이 케어

일본 보청기 판매의 핵심 역할 '안경 체인'이 수행… '감각 기관의 노화'라는 공통된 인식으로 안경원이 보청기 판매 주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은 이론적으로 세계 최대의 보청기 시장을 잠재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29%를 넘어서는 '초고령 국가' 일본의 보청기 보급률은 약14~15%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영국이나 독일 등 서구 선진국의 40% 이상의 보급률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치다.

이러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는 단순한 제품 경쟁력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특유의 유통 구조와 전문가 양성 시스템의 부재, 그리고 보청기를 '의료기기'가 아닌 '가전제품'으로 인식하는 소비 문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결국 일본 보청기 시장은 독특한 유통 채널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안경 체인'과의 밀접한 관계다.



EU국가의 보청기 착용률은 40%

최근 시장 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일본 보청기 시장은 2024년 기준 약 6억 5,800만 달러(약 9,727억원) 규모로 추산되며, 2035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9.13%를 기록해 약 17억 2,000만 달러(약 2조 5,43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성장은 고령 인구의 절대적 증가와 더불어 난청이 치매나 인지 기능 저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의학적 연구 결과가 대중에게 확산되면서 '청각 건강(Hearing Health)'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때문이다.

보청기 유통은 안경 체인이 강세

일본 보청기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안경원'이 보청기 유통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이는 청각학(Audiology)이 독립된 의료 분과로 확립된 미국이나 청각관리사(Hearing Care Professional)가 독립된 직능으로 인정받는 독일과는 대조적인 구조다.

일본에서 안경체인이 보청기 시장을 주도하게 된 배경에는 '감각 기관의 노화'라는 공통된 고객 생애 주기가 존재한다. 40대 중반 이후 노안으로 인해 누진렌즈를 맞추러 오는 고객은 통계적으로 60대 이후 노인성 난청(Presbycusis)을 겪을 확률이 매우 높은 잠재적 고객군이다. 안경 체인들이 기존의 안경 판매를 통해 구축된 신뢰 관계를 활용하여 보청기 상담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안경원은 시각과 청각에 대해 '크로스 셀링(Cross-selling)'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시장 경쟁 구도와 대형 체인의 전략

일본 시장은 소노바(Sonova), 디만트(Demant), WS 오디오롤지(WS Audiology) 등 글로벌 '빅 5' 제조사와 일본 토종기업 리온(Rion)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대형 유통 체인들은 이들 제조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자사 브랜드(PB)로 판매하거나 특정 제조사와 전략적 제휴를 맺어 '샵인샵' 형태의 전문 상담 코너를 운영한다. 최근에는 대형 소매 체인이 시장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세그먼트로 부상하고 있다.

사내 교육 아카데미와 OJT의 체계화

안경원 대형 체인들은 본사 차원에서 교육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신입 안경사를 보청기 전문가로 육성하는 트랙(Track)을 운영한다.

●신입 입문(1~2년차) : 안경 광학 업무와 병행하여 보청기의 기본 구조, 배터리 교체, 청소 등 기초 유지보수 업무를 습득한다.

●전문가 육성(3년차 이상) : 보청기 전담 인원으로 선발된 직원은 테크노에이드 협회의 커리큘럼에 맞춰 집중 교육을 받는다. 이때 본사는 교육비 지원, 시험 응시료 지원, 합격 시 수당 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롤플레잉(Role-playing)과 접객 : 일본 특유의 접객 문화를 반영해 난청 노인의 심리적 저항감을 낮추고 신뢰를 형성하는 상담 스킬 교육에 큰 비중을 둔다.

이는 독일의 기술 중심 교육과는 차별화되는 일본만의 강점이다.

유통 채널	특징 및 시장 역할	점유율 동향
안경 체인	안경과 보청기를 함께 판매하는 '겸업' 모델. 접근성이 높고, 기존 안경 고객(노안)을 난청 고객으로 전환하는 데 유리함.	파리미키(Paris Miki), 메가네톱(Megane Top) 등 대형 체인이 시장 주도.
보청기 전문점	보청기만을 전문적으로 취급. 리온(Rion) 등 제조사 직영점 또는 독립 전문점 형태. 전문성은 높으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견고함. 고도 난청 등 전문적 케어가 필요한 층에서 선호.
병원/클리닉	이비인후과 내 판매 또는 제휴 판매. 의학적 진단과 연계된 신뢰성 확보.	의료법상 영리 판매 제한으로 인해 직접 판매보다는 소개/처방 위주.
온라인/소매점	저가형 증폭기 또는OTC(Over-the-Counter) 유사 제품 판매. 상담 없음.	최근 저가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세.

제조사 주도의 교육 의존도

일본의 많은 안경 체인들은 자체 아카데미를 보유한 필만과 달리 교육의 상당 부분을 보청기 제조사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제조사들은 안경 체인 직원을 대상으로 신제품 런칭 세미나, 피팅 소프트웨어 교육 등을 수시로 제공한다.

●한계점 : 이러한 교육은 특정 제조사의 제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기능적 교육에 치우칠 위험이 있으며, 중립적이고 포괄적인 청각학 지식을 습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원격 청각케어(Tele-audiology) 도입

대형 안경 체인들은 전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T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방의 소규모 지점에 방문한 고객을 본사의 숙련된 전문가(인정 기능자)가 화상 시스템을 통해 원격으로 상담하고, 보청기 피팅 값을 원격 제어하는 시스템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전문가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경 체인의 모든 지점에서 균일한 서비스 품질을 제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보청기 '판매'에서 '케어'로 전환

일본 보청기 시장은 단순한 '기기 판매'에서 전문적인 '청각 케어'로의 전환기에 놓여 있다. 안경 체인들은 방대한 점포망을 무기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전문성 결여라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안경체인 : 독일 필만 아카데미와 같은 자체적인 고등 교육기관을 설립하거나 대학과의 산학 협력을 통해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단순 판매원이 아닌 '청각케어 컨설턴트'를 양성하는 것이 차별화의 핵심이다.

●예비 종사자 : 일본 시장 진입을 희망하는 전문가나 기업은 '안경원'이라는 유통 채널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안경 광학 기술과 청각학 지식을 융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일본의 보청기 시장은 거대한 인구통계학적 기회와 구조적 비효율성이 공존하는 시장이다. 대형 안경 체인들이 독일의 선진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교육 시스템을 혁신한다면, 잠자고 있는85%의 미충족 수요를 깨우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근착 외지에서

LENSME

"독보적인 프리미엄 렌즈샵 렌즈미
지금이 신규 오픈 최적의 기회!"

인테리어 비용 파격지원





전속모델 고윤정

신규 가맹점에 드리는 혜택

최대 1,000만원 상당의	인기있는 렌즈미	전문적인 마케팅을 통한
오픈이벤트	**PB렌즈 1200만원**	**온/오프라인**
전폭 지원	위탁 지원	홍보 지원

우선 오픈 지역

서 울	명동 | 구로디지털단지 | 수유 | 신논현 | 오목교 | 이수 | 압구정 | 마곡 | 상암 | 왕십리 | 여의도 | 이태원
경 기	위례 | 평촌학원가 | 미금 | 모란 | 동탄 | 철산 | 하남 | 미사역
강 원	강릉 | 동해
충 청	서산 | 세종

가맹문의 김진우 부장 010-9487-9045 | 김동훈 과장 010-6336-9849

시장에서 원하는 안경렌즈의 모든 것… '데코비젼'

고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유명 안경원서 인기… 오는 4월 고기능 변색렌즈 '트리벤션 플러스' 출시

㈜데코비젼의 각종 솔루션이 신년 초부터 고객들에게 높은 주목을 받으며 시장의 킬러 타이틀로 떠오르고 있다.
하이 퀄리티와 합리적인 가격을 모두 만족시키는 데코비젼의 렌즈이기에 안경사와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선호도를 얻고 있는 것.
다음은 현재 유명 안경원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데코비젼의 대표 아이템들이다. 문의 02)335-7077



고객 절대만족 – '니덱 청광차단 UV-MAX'

국내에 출시한 지 올해로 18주년을 맞은 NIDEK은 고객으로부터 꾸준하게 사랑을 받는 브랜드다. 그만큼 일반적인 그린 코팅이 아닌 옐로우 그린의 7층 멀티코팅으로 그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니덱의 UV-MAX 렌즈는 모든 여벌 품목이 생산되는 청광차단 렌즈로 저가 제품으로 잠식된 국내 안경시장에서 안경사들의 높은 선호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중굴절 비구면 렌즈는 새로운 신소재로 기존 중굴절 제품과 달리 소재의 탄성이 뛰어나 무테나 반무테 가공이 수월하다.

◆주요 추천고객

안구질환 및 안과 수술 고객 / 스마트기기를 많이 사용하는 청소년 / 야외 활동이 많은 고객 / 피부가 민감한 고객





개인맞춤형 누진렌즈 – '니덱 클라비스'

니덱렌즈의 클라비스 시리즈는 싱쾌한 선명도와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는 최고급 프리미엄 개인맞춤형 누진렌즈다. 클라비스HI/ 클라비스HD/ 클라비스SQ/ 클라비스GL/ 클라비스DAILY 등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갖고 있다. 특히 클라비스HI는 인공지능(AI) 설계로 각각의 정보 데이터를 수집해 착용인이 어떤 시 환경을 갖고 있는지 판단한 후 AI 프로그래밍으로 개인맞춤형으로 설계해 쉽고 빠른 적응을 도와주는 고기능 솔루션이다.

◆AI 설계의 장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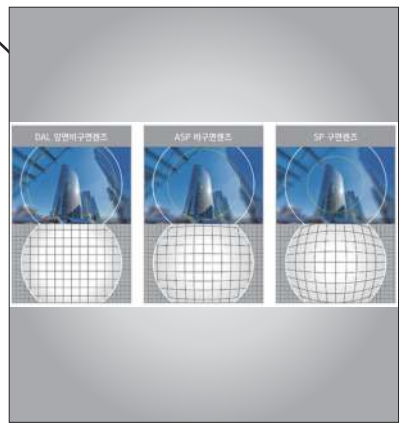
- 정보 데이터 수집 (각각의 개인별 정보)
- 시 환경 분석(어떤 시 습관에서도 쉽게 적용 가능)
- 개인맞춤형 누진렌즈 설계(쉽고 빠른 적응을 위한 이상적인 설계 제시)

더 얇고, 가볍고, 선명하게! – '양면비구면 UV – 스타'

양면비구면렌즈인 UV-스타는 주변부의 수차를 제거해 왜곡되지 않은 깨끗하고 선명한 시야를 제공한다. 특히 1.74 양면비구면렌즈는 신소재 모노머를 사용하여 기존 1.74 렌즈의 단점인 탁한 색상을 완벽히 보완했다. 과거 일반렌즈와 같은 투명함으로 자외선 차단과 청광을 차단하고, 초발수 코팅까지 탑재돼 오염방지에도 탁월하다. 가격도 매우 합리적이어서 소비자들에게 쉽게 어필하는 것도 장점이다. 회사 측은 부가가치가 높은 양비 청광렌즈를 적극 홍보해 안경원의 수익 창출에 기여할 방침이다.

◆데코비젼 양면비구면의 특징

- 렌즈 주변부의 수차 제거, 왜곡되지 않은 시야 제공
- 기존 렌즈들에 비해 보다 얇은 두께, 가벼운 무게, 편안한 착용감 실현
- 개선된 광학적 특성으로 우수한 선명도와 더욱 넓은 주변 시야 제공
- 1.60/ 1.67 모노머 렌즈로 청색광 차단 양비렌즈
- 1.74 신소재 모노머





시원하고 편안한 시야 선사 – '샤이닝-I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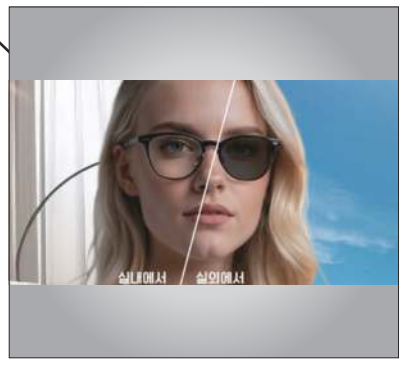
디지털 시대에 현대인의 필수품인 스마트폰 등 디지털 디바이스에 노출이 날로 늘어나는 가운데, 다양한 실내외 활동에서 받는 강한 햇빛과 근로 현장에서 열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우리의 눈은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혹사당하고 있다. 특히 약 780~1,400㎚ 범위의 전자파인 근적외선은 노출 정도에 따라 백내장, 망막 손상까지 유발하는 위험한 광선이다.

근적외선 착색 여벌 렌즈인 샤이닝-IR은 자외선+청색광+근적외선 걱정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우수한 기능성 렌즈로 근적외선에 쉽게 노출되는 특정 직업군(공업, 의료, 가정 등)들에게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야외 활동으로 태양빛에 많이 노출되는 고객이나 각막 및 수정체 손상이 쉬운 유소년층, 백내장이나 녹내장, 망막손상 등의 예방을 원하는 고객에게 강력 추천할 수 있는 고기능 복합 렌즈다.

기능 추가 변색렌즈 – '트리벤션 플러스'

국내 변색렌즈 시장이 급속 성장하면서 고객의 니즈도 더욱 커지고 다양화되고 있다. 데코비젼에서 스핀 변색으로 출시한 트리벤션 변색렌즈는 올해 4월 한층 업그레이드된 성능을 자랑하는 '트리벤션 플러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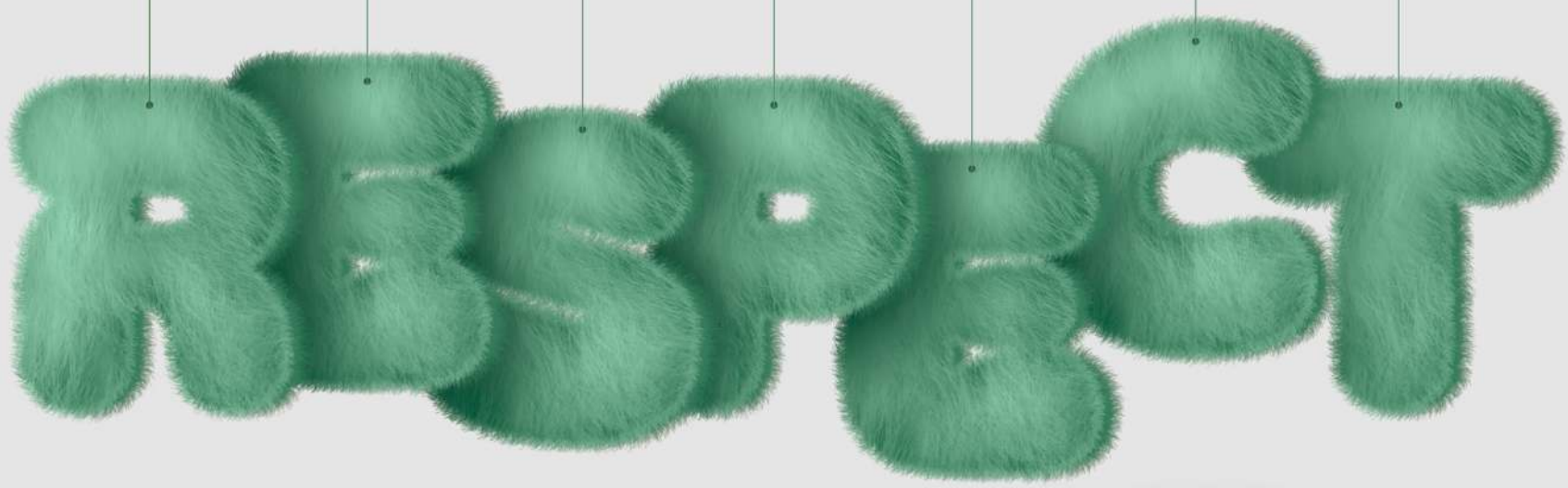
트리벤션 플러스는 그레이, 브라운 컬러로 구성되고, 기존 트리벤션 변색에 비해 변색 속도와 농도가 월등히 업그레이드되어 현재 시중에서 만날 수 있는 고가의 변색렌즈와 손색이 없는 기능을 자랑한다. 또한 트리벤션 변색렌즈는 1.60 구면과 1.67 비구면렌즈에 –400 난시까지 모든 구색으로 갖춘 변색렌즈로 가격도 매우 합리적이어서 올해 국내 변색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NIDEK

안경존중 irespect.co.kr

WINC
안경존중 X 윙크렌즈



RESPECT EYES
RE:SPEC EYEWEAR

가맹상담신청

안경존중 상권 개발 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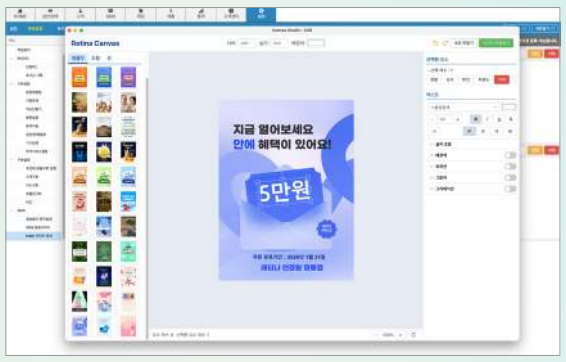
- 송파점 20평대 (예상 매출 4천만 원)
- 보라매점 20평대 (예상 매출 3천만 원)
- 은평점 30평대 (예상 매출 8천만 원)
- 청량리점 20평대 (예상 매출 4천만 원)
- 서초점 40평대 (예상 매출 5천만 원)
- 동서울점 40평대 (예상 매출 3.5천만 원)
- 건대점 50평대 (예상 매출 4천만 원)

안경존중 가맹상담 | **010-8127-9938** | www.irespect.co.kr

레티나, 최첨단 신규 부가서비스 전격 추가

맞춤형 문진 • 시각화 비전 가이드 • 양안 검사 기능 탑재… 실전 마케팅 도구까지 한 번에 간단 처리







전국 안경원의 45% 이상이 사용 중인 ㈜레티나(대표 서동길)의 통합 관리 플랫폼 레티나가 안경원의 프리미엄 고객 관리와 마케팅 역량을 극대화하는 부가서비스를 대거 선보였다. 레티나에서 새롭게 개발·공개하는 핵심 기능은 '고객 맞춤형 상담'과 '시각적 데이터 마케팅'이다.

프리미엄 고객 관리 위한 서비스 개발

첨단 기능 1. 고객 문진 차트 - 새로운 부가서비스는 매장 맞춤형 상담의 시작인 고객 문진 차트다. 새롭게 개편된 고객 문진 차트는 고객의 나이, 성별, 개인별 눈 상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문진표를 생성해 사용하도록 지원한다. 획일화된 질문에서 벗어나 고객의 특성과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심층적인 상담이 가능해진 것이다.

첨단 기능 2. 검안 데이터 시각화 - 검안 데이터의 직관적 시각화인 비전 가이드다. 이는 고객의 검안 차트 데이터를 바탕으로 생성된 직관적인 시각화 자료를 제공한다. 고객들이 자칫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전문적인 검안 수치를 이해하기 쉬운 그래픽과 시각 자료로 변환해 보여줌으로써 상담의 질과 고객의 신뢰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첨단 기능 3. 완성형 양안검사 - 프리미엄 비전 케어의 완성인 양안 검사다. 안경사의 전문성을 더욱 돋보이게 할 양안 검사 기능을 새롭게 구성한 레티나는 정밀한 양안 검사 결과의 체계적인 입력은 물론 해당 검사 수치와 상태에 대한 상세한 설명 추가가 가능해져 고객에게 프리미엄 비전 케어가 실현된다.

첨단 기능 4. 이미지 편집과 저장 공간 확장 - 실전에서 강력한 마케팅 무기가 되는 이미지 편집기와 저장 공간이다. 안경원 매출 증대를 위한 실용적인 마케팅 도구로 이 기능은 레티나에서 제공하는 기본 이미지를 사용자가 자유자재로 편집이 가능하며, 넉넉한 저장공간을 제공한다. 편집한 이미지는 안경원의 '이미지 문자(MMS)' 발송이 가능해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어 적극적인 고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된다.

레티나의 서동길 대표는 "안경원의 고객 상담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신규 부가서비스를 개발해 기쁘다"며 "앞으로도 레티나는 고도화된 IT기술을 바탕으로 전국 안경원의 스마트한 경영과 확실한 매출 상승을 돕는 최고의 파트너가 될 것"이란 포부를 밝혔다.

이로써 단순한 고객관리를 넘어 영업과 마케팅의 강력한 무기로 진화하고 있는 레티나의 새로운 행보가 향후 안경산업에 어떤 긍정 효과를 가져올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 문의 070-7700-8961

RETINA

RETINA

EVOLUTION with AI TECHNOLOGY

AI 기술로 진화하는 안경원 관리

지금이 갈아탈 타이밍

월 사용료 무료 | 데이터 이전 가능 | AI기술 탑재

AI 안경원 관리 플랫폼 레티나

가입상담 070-7638-8963 / 070-7700-8961

Eye & Health Care
NIDEK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으면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검안 시스템



[제품 구성]
- 유니트 테이블 OS-5010
- 자동 포롭터 RT-6100
- 자동 검안기 ARK-1
- 편광LCD차트 SC-1600P
- 매장 환경에 따라 검안기, 시력표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니덱
편광LCD차트
SC-1600P



편광 LCD차트 (국산)



니덱 미러차트
SSC-370

자동 검안기
ARK-1 / ARK-1a



- 주/야간 시력 동시 측정
- AR, KM 측정 정확도 향상
- 컬러 틸팅 LCD 스크린
- 백내장 측정 기능 (ARK-1a)
- 조절력 측정 기능 (ARK-1a)

풀-오토 검안기
ARK-F



- 완벽한 풀-오토 측정 (턱만 올리면 측정 시작)
- 주/야간 시력 동시 측정
- 백내장 측정 기능
- 조절력 측정 기능
- 틸트&스윙 터치 LCD스크린
- 네트워크 기능 향상

휴대용 검안기
Handy Ref-K



- 무게 998g 휴대성 좋음
- 측정 정확도 향상
- 역반사(백내장) 측정 기능
- 자동 축 보정 기능
- 3.5인치 풀 컬러 LCD
- 오토-커팅 고속 프린터 내장
- 편리한 충전 스테이션

수차분석기(기본형)
OPD-SCAN III VS



- 고위수차 분석 기능
- 주/야간 시력 동시 측정
- 전문적인 분석 리포트
- 컬러풀한 분포도 맵
- 다양한 측정 기능 (AR, KM, 백내장, 굴절/ 각막 분포도, PD, PS)

수차분석기(고급형)
OPD-SCAN III



- 0~8차 상세 고위수차
- 이미지 생성 속도 향상
- 맵별 상세 서머리 제공
- 컬러풀한 분포도 맵
- 다양한 측정 기능 (AR, KM, 백내장, 굴절/ 각막 분포도, PD, PS)

안축장 측정기
AL-Scan M



- 안축장 길이 측정
- 케라토 측정
- MV-1(근시 관리프로그램)
- 틸팅 터치 LCD스크린
- 네트워크 기능

컴팩트 검안시스템
TS-310



- 최소 공간(1㎡)의 검안 시스템
- RT-3100 (자동 포롭터)
- 자동 포롭터 + LCD미러차트
- 상하 이동 전동 포럽터 암
- 원/근용 시표 전환 시스템
- 다양한 설치 방법

셀프 검안 시스템
TS-610 FARS



- 음성 안내 셀프 검안 시스템
- RT-6100 (자동포롭터)
- 다수의 장비와 네트워크 가능
- 자동 포롭터 + LCD미러차트
- 상하 이동 전동 포럽터 암
- 원/근용 시표 전환 시스템
- 다양한 설치 방법

자동렌즈메터
LM-7 / LM-7P



- 빠르고 정확한 측정 성능
- 5.7인치 컬러 터치LCD
- 다양한 측정모드 지원 (단초점, 누진, 콘택트, PD, UV, 프리즘 설계 모드)
- 오토-커팅 고속 프린터 내장 (LM-7P)

미양광학(주)
MIYANG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가길 30 (우 04527)
T_02)779-7400~2 / 02)752-8721 F_02)777-4730

영업이사 김창해 010.4491.4009
기술부장 정민우 010.2465.6621

myopt.qshop.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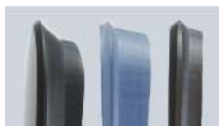
미양광학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하였습니다.
단순한 제품 소개를 넘어 검안교육 및 최신 트렌드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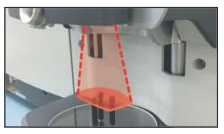
무패턴 자동옥습기
LEXCE Trend B / DB



* LEXCE Trend B (드릴 X, 하이커브 산각 X)
* LEXCE Trend DB (드릴 O, 하이커브 산각 X)
* LEXCE Trend8 B (드릴 X, 하이커브 산각 O)
* LEXCE Trend8 DB (드릴 O, 하이커브 산각 O)

LEXCE Trend8





데모렌즈 스캐너



다양한 무테 구멍 가공



정밀한 5축 제어 드릴

- 일체형 3D 트레이서
- 일체형 디지털 블로커
- 패턴 데이터 저장 (2만개)
- 산각/ 미니산각 기능
- 홈파기 기능 (자동, 가이드)
- 면치기 기능 (산각, 무테)

다기능 자동옥습기
ME-1





- 스텝베벨, 플립바 가공
- 일반/미니/하이커브 산각
- 하이브리드 산각, 홈파기
- 일반/부분 홈파기
- 스포츠 고글 가공
- 무테 드릴/디자인 커팅
- 일반/특수 면치기 가공
- 패턴 데이터 저장(2만개)

오토블로커
ICE-1500





오토매틱 블로킹



3D 프레임/데모 트레이서



자동 렌즈메터 기능

- 원터치 오토블로킹
- 자동 렌즈메터 기능
- 전 메뉴 한글 지원
- 최대 5대 옥습기 연결 가능
- 고성능 트레이서 탑재
- 데모렌즈 스캔 기능
- 디자인 편집 기능
- 패턴 데이터 저장 (2만개)

미양광학(주) 전국 대리점

CIL 광학	디아이광학	동아메디칼	BG 메디칼	한솔광학
(서울/경기/인천/강원)	(대전/충남,충북)	(대구/경북)	(광주/전라/제주)	(부산/경남)
010-3791-8123	010-8808-6252	010-5380-9907	010-3628-3788	010-3787-3289

WOF | Wenzhou

ufi Approved International Event

8 9 10

2026년 5월

지금 무료로 사전 등록하세요
현장 등록비 5달러를 절약하세요



공장 소싱 •

전체 산업 체인 •

제24회
중국 원저우 국제
광학 박람회

www.opticsfair.com

기술이 브랜드가 되는 안경 체인

「無極眼鏡」

[무] [극] [안] [경]

누군가는 상품을 팔고,
우리는 기준을 만듭니다.

상담 및 가맹 문의 010-8562-7424

30년 불황 극복한 일본기업 ① 유니클로

혁신 못하면 끝장… 잇단 비상경영으로 일류기업 등극

싸구려 편견 깨고 기능성 • 편안함 • 심플 디자인의 '후리스' 연간 2,600만장 판매
야나이 다다시 회장, 위기 순간마다 현장 중심과 역발상 경영으로 성공 신화 창조

'잃어버린 30년'으로 불릴 만큼 최장기 불황을 겪은 일본과 그 기업들. 일본은 1990년대 초 버블 붕괴부터 2020년대 초반까지 30여 년간 매년 약 10,000건 ~ 15,000건 안팎의 기업이 법적으로 파산했다. 또한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일본의 소규모 사업자가 1980년대 후반부터 2014년까지 30년간 약 150만 개 이상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그만큼 일본 경제가 겪은 30년 불황은 기업이 도산하는 단순한 단계를 뛰어넘어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기업이 자연 소멸하는 극심한 과정을 겪었다.

그러나 일본의 몇몇 기업, 특히 '유니클로'는 국가적인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역발상 경영으로 오늘날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다.

'후리스' • '울트라 라이트 다운' 연속 히트

1984년 히로시마의 작은 양복점에서 시작해 현재 매출 3조 1,038억엔(약 28조원, 2024년 기준)의 글로벌 패션 공룡으로 거듭난 유니클로의 성공은 결코 행운이 아닌 불황의 문법을 완전히 뒤집은 치밀한 전략의 결과였다.

사실상 일본은 90년대 초 경제 거품이 꺼지면서 소비자들은 아예 지갑을 닫고 살았다. 이때 유니클로 야나이 다다시 회장은 위기의 순간에 '불황이 곧 기회다'며 가격 파괴와 SPA 모델 도입, 즉 '저가 고품질' 판매에 뛰어들었다. 기획부터 제조, 유통, 판매를 하나로 묶는 SPA(제조•직매형 의류) 방식을 도입해 중간 마진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특히 1998년에 도레이(Toray)와 협업해 '싸구려 옷'이라는 편견을 깨고 1,900엔짜리 후리스(Fleece)를 연간 2,600만 장이 판매하는 신화를 창조하며 유니클로를 일본 브랜드 최고 반열에 올렸다.

이어 유니클로는 싸구려 이미지를 기술로 씻겨내는 LifeWear, 즉 고품질의 기능성과 편안함, 심플한 디자인을 갖춘 '궁극의 일상복'을 제조•판매하는 전략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다. 그러나 유니클로는 '싸구려 옷'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로 두 번째 위기를 맞았다. 저가 상품이라는 늪에 빠진 것이다. 이 위기는 일본의 국가적인 불황에 이어 찾아온 유니클로의 두 번째 위기였다. 그러나 야나이 회장은 위기의 순간에 '패션'이 아닌 '테크놀로지'에 승부를 걸었다. 즉 R&D와 혁신 소재 개발에 나서서 히트텍(Heattech), 에어리즘(AIRism), 울트라 라이트 다운 등 기능성 소재를 개발해 '옷으로 삶을 바꾼다'는 '라이프웨어(LifeWear)' 철학을 공고히 만들었다. 유니클로는 이와 동시에 질 샌더, JW 앤더슨 등 세계적인 디자이너와의 콜라보를 통해 베이직한 디자인에 세련미를 더하며 타겟층을 전 세대로 확장해 대성공을 거두었다.

야나이 회장의 '1승 9패 경영 철학' 대박

야나이 회장의 경영 철학은 그의 저서 「1승 9패」에 자세히 담겨 있다. 그는 '9번 실패해도 1번 제대로 성공하면 된다'는 각오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을 중시했다. 실패는 성공의 밑거름임을 1승 9패의 경영 철학을 실천한 것이다. 다음은 야나이 회장이 불황기에 도입한 경영 원칙이다.





야나기 다다시 회장과 회사 로고.

● 현장중심의 경영

유니클로가 세계 브랜드로 성장한 것은 본사의 지시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매장 현장의 직원이 스스로 경영자처럼 판단하고 움직이는 '현장 중심의 경영'을 통해 위기 대응력을 극대화한 때문이다. 회사에 전원 경영(Zen-in Keiei)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다.

현재 유니클로는 현재와 미래, 즉 '디지털 소비 소매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단순한 의류기업을 넘어 2017년부터 시작된 디지털 기반의 물류 및 공급망 혁신(SCM) 전략인 '아리아케 프로젝트'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제조 소매업으로 진화하고 있다. 고객의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생산에 반영하고, 물류 자동화를 통해 재고 없는 경영을 목표로 한다.

● 인재 육성과 전원 경영(Zen-in Keiei)

야나이 회장은 모든 직원이 경영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구축한 독특한 시스템은 FR-MIC (Fast Retailing Management and Innovation Center), 즉 야나이 회장이 설립한 경영자 육성기관이다. 전 세계에서 선발된 차세대 리더 200명에게 야나이 회장이 직접



유니클로 울트라 라이트 다운

자신의 경영 철학(23개 경영 원칙)을 전수하고, 현장 중심의 과제를 해결하게 한다.

● 점장 중심주의 (Store Manager as CEO)

유니클로 매장의 점장은 단순한 관리자가 아닌 '개별 사업체의 경영자'로 대우받는다. 손익 관리, 재고 조달, 인력 채용에 전권을 부여하며, 성과에 따라 본부 임원보다 높은 연봉을 지급하기도 한다.

● 영어 공영화와 글로벌 순환 근무

유니클로는 2012년부터 사내 공용어를 영어로 전환해 국적에 상관없이 전 세계 매장에서 근무하며 실전 경험을 쌓게 하는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현장 중심의 글로벌 인재를 키우고 있다. 「성공은 하루 만에 잊어라」는 그의 저서에서도 이 철학은 직원이 과거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문자답하며 문제를 발견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강조한다.

● 환경의 순환형 비즈니스로의 전환

유니클로는 모든 제품의 소재를 재활용할 수 있는 소재로 50% 전환했다. 2030년까지 전체 제품 소재의 약 50%를 재생 폴리에스터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소재로 교체할 계획이다(2025년 기준 20% 달성).

● RE.UNIQLO 스튜디오 개설

낡은 유니클로 옷을 수선하거나(새로운 디자인으로 리폼(Remake)해 주는 'RE.UNIQLO 스튜디오'를 전 세계 주요 거점에 설치해 옷의 수명을 늘리고 있다. 이 같은 전략은 공급망 탄소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조치로서 2030년까지 직영 매장 및 사무실 탄소 배출량을 90% 감축(2019년 대비)하는 목표를 세우고, 주요 공급처의 에너지 전환도 직접 지원한다.

● 투명성과 지역사회 기여

유니클로는 공급망 추적성을 도입해 원재료 조달 단계부터 봉제까지 모든 공정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해 강제 노동이나 인권 침해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매년 수백만 벌의 히트텍 등 의류를 난민과 취약계층에 기부하며 사회 안전망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 차세대 팀 경영 체제

최근 야나이 회장은 승계 구도의 구체화를 위해 '독단적 카리스마'에서 벗어나 팀 기반의 차세대 경영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2023년 유니클로 글로벌 CEO로 임명된 츠카코시 다이스케를 필두로, 젊은 경영진들이 야나이의 철학을 이어받아 실무를 주도하도록 관치체계로 개편하고 있다.

결국 유니클로는 국가의 30년 장기 불황 속에서 '회사는 곧 사람이다'는 철학 아래 직원을 단순하게 뽑는 것이 아니라 경영자를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성공했다.

야나이 다다시 회장은 항상 "성공은 하루 만에 잊어라.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는 순간 위기가 시작된다" "고객이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수시로 던지며 철저히 경영 철학을 따르고 있다.

Neon
눈이 자유로운 세상

눈(眼)이 너무 좋아하는 '네온 RGP렌즈'
안경사 전문가다움은 네온RGP 처방입니다.



네온 RGP 렌즈 정기교육

내용 : RGP렌즈 초급자 교육
일정 :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시간 : 오전 11시~오후 4시
장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04(서초동, 국제전자센터)
15층 1524호(3호선 남부터미널역 3번 출구)
교육 문의 및 신청 1644-2806

업계 유일하게 자동 처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네온TEC.
저희 네온TEC는 첨단 RGP렌즈의 정확한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GET IT ON Google Play
Download on the App Store

자동 처방 프로그램 이용방법

네온렌즈 검색 → 어플 설치 → 자동처방 실행

주문전화 | 1644-2806

FOREIGN NEWS

정리_허정민 기자



伊 미가 신상엔 '기술+디자인' 조화

이탈리아의 아이웨어 업체인 MIGA Studio에서 지난달 말 2026 S/S 시즌의 신제품 시리즈를 출시했다. 일본 장인정신과 유럽 디자인을 조화시킨 미가 스튜디오의 이번 시즌 신상은 정제된 타키론 아세테이트, 티타늄, 알루미늄으로 제작됐으며, 현대 아키텍처의 정보를 바탕으로 구조와 정밀성이 뛰어난 컬렉션을 선보이고 있다.

원데이 콘택트렌즈, 고속 성장 '이상무!'

美 로이터통신, 제조사들 고마진으로 판매 집중… 연간 4~6% 성장 전망

세계적으로 시력 교정의 필요성이 높아지는데 힘입어 올해에도 원데이 콘택트렌즈의 안정적인 성장세가 확실시 되고 있다.

미국의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원데이 콘택트렌즈가 2026년 시장을 견인할 것'이란 기사를 통해 '존슨앤드존슨·바슈롬·쿠퍼비전·알콘 등 글로벌 4대 기업이 한 달 착용 렌즈 등 재사용 렌즈에서 더 고가인 원데이 렌즈로 교체하는 비율이 증가하면서 막대한 수혜를 얻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콘택트렌즈 제조사들은 원데이 렌즈가 가격적인 부담감을 극복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단위당 마진이 원데이 렌즈가 더 높음으로써 재사용 렌즈보다 원데이 렌즈에 약 30~50%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해 판매량을 증가시키며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다. 뉴욕의 한 애널리스트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물건을 관리하고, 추적하고, 청소하고, 보관하는 등의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기보다 물건을 소유하고, 버리는 편리함을 더 선호한다"며 "이는 원데이 렌즈에 대한 선호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앞으로 관련 시장은 연간 4~6%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 세계의 근시 인구는 약 26억명으로 추산하는데, 이 수치는 2030년까지 약 33억 6천만명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마이데이 마이사이트, 대양주서 출시

쿠퍼비전, 호주·뉴질랜드서 어린이 근시진행 억제 렌즈 시판 돌입



글로벌 업체 CooperVision의 검증된 MiSight 원데이의 액티브 컨트롤 기술과 MyDay 렌즈의 첨단 소재인 실리콘 하이드로겔이 결합한 새로운 근시 조절 소프트렌즈 MyDay MiSight 원데이가 지난 2일부터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출시됐다.

이 렌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이사이트 원데이의 디자인과 동일한 선명한 시력과 근시 억제 효과를 제공하며, 기존 마이사이트 원데이보다 뛰어난 편안함, 향상된 조작성 및 통기성을 자랑한다. 또 액티브 컨트롤 기술은 10년에 걸친 임상 연구를 통해 처방대로 착용했을 때 정시안에서 보이는 수준과 유사하게 근시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들은 임상시험에서 주 6일간 하루 최소 10시간 이상 콘택트렌즈를 착용토록 했는데, 실제로 어린이들은 주 6.5일 이상 하루 13~14시간 렌즈를 착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쿠퍼비전 호주·뉴질랜드의 미셸 노스 총괄 매니저는 "자사는 10년 넘게 근시 관리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다"며 "마이데이 마이사이트 원데이는 우리의 가장 진보된 콘택트렌즈 소재와 전 세계 수십만 명의 부모와 어린이들이 이미 신뢰하는 광학 설계를 결합한 렌즈로, 근시 조절을 최대한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설명했다.

어두운 환경서 근거리 집중하면 근시↑

美 뉴욕주립대, 어두운 조명 환경서 망막 조도 크게 감소 → 동공 수축



미국에서 발표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어두운 환경에서 장시간 근거리 초점을 사용하는 것이 근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 같은 안구 질환은 특히 어린이와 젊은 성인 사이에서 근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 뉴욕주립대학교 검안대학이 「Cell Reports」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실내 생활방식은 근시의 주요 원인으로 지속적인 근거리 작업, 특히 실내 작업 중에 망막에 도달하는 빛의 양이 공통적인 근본 요인이라고 결론지었다. 이 연구에는 34명의 피험자가 눈의 위치와 동공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특수 안경을 착용하고 참여했는데, 사물을 보는 거리를 줄이거나 지나치게 강한 굴절력을 가진 렌즈를 착용해 조절력이 증가하면 동공 수축이 더욱 강해졌다. 더욱이 수정체 조절이 장시간 지속될수록 동공 수축은 더욱 강해졌다. 또한 이 연구는 조절에 따른 눈 회전과 동공 수축에 대한 눈깜빡임의 효율성으로 인한 추가적인 근시 장애를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를 주도한 뉴욕주립대 검안학과에서 박사 과정 중인 우루샤 마하르잔 학생은 "야외의 밝은 햇빛 아래에서는 동공이 수축해 눈 보호와 동시에 충분한 빛이 망막에 도달할 수 있다"며 "사람들이 실내에서 휴대폰, 태블릿, 책과 같은 가까운 물체에 집중할 때 동공이 수축하는 것은 밝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지를 더 선명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어두운 조명 환경에서 이러한 조합은 망막 조도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의 지도교수인 호세 마누엘 알론소 교수는 "이 연구는 시각적 습관이나 조명, 눈 초점 조절이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에 대한 기존의 관점을 재정립하는 검증 가능한 가설을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BOOK | 손재환 원장의 전문가로 거듭나는 실전 가이드 '안경사의 기술'⑥



고객 응대

기본 응대

안경사를 구인해서 같이 일해보면 의외로 기본적인 인사법이나 응대 요령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CS 교육 내용이 너무 교과서적이고 정적인 면은 있지만, CS 교육을 하면 그때뿐이다. 우리 안경사의 현실은 실무에서 사용되고 활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고객 응대가 필요하다. 나는 절대로봇처럼 정형화된 고객 응대나 CS를 하지 말라고 교육한다. 많은 강사들이 CS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육한다. 하지만 직원들도 사람인데 온종일 서서 근무하는 특수성으로 항상 웃으면서 고객 응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아주 특별하게 타고난 사람 몇몇을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매장에서의 고객 응대는 표정보다는 목소리 강조를 하는 편이다. 표정 관리는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목소리는 쉬운 편이다. 목소리는 그 사람을 대신하는 기(氣)이고 힘이자 에너지다.

군대에 입대하면 이등병에게서 느낄 수 있는 군기가 충만한 군인의 목소리를 생각해 보자. 서비스업의 경우 목소리는 항상 솔(음계 이름) 톤으로 하는 것이 좋다. 활기찬 목소리는 매장과 고객에게 새로운 느낌으로 활동적이고 동적인 느낌으로 변한다. 자기 자신의 목소리에서 느낄 수 있는 에너지 즉, 기운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연습하자.

응대 인사

안경원에서 직원들과 함께 근무하다 보면 인사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인사는 친절의 기본이고, 친절을 표시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건성으로 대충하는 인사를 옆에서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다. 경력은 많은데 건성으로 인사를 대충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인사를 선배 안경사보다 더 잘하겠다는 마음으로 근무하면 자신감이 빨리 생길 것이다. 거울 앞에서 자기 얼굴을 보면서 힘차고 에너지 넘치게 연습을 해보라. 반드시 이때까지 느낄 수 없었던 기운을 스스로 느낄 것이다.



사진은 손재환 원장이 운영하는 아이데코 의왕점 내부 모습

가족을 대하듯 인사하자

내가 안경사로 30여년 근무하면서 가장 좋았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인사 방법은 고객에게 내 친구나 내 부모님, 친척을 오랜만에 만난 느낌으로 인사하면 제일 좋다. 이 인사법을 직원들에게 수시로 권장한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 부모님, 친척들에게 하는 억양과 표정, 느낌으로 인사하면 최고의 인사법이다. 가장 친한 친구와 몇 년 만에 만났다고 생각하면서 인사를 연습해 보자. 이 인사법보다 더 좋고 효과가 큰 인사는 없다고 생각한다.

반드시 인사를 잘하는 안경사가 되기 바란다. 〈계속〉

자이스, 미국 MEC와 전략적 파트너십

MEC의 독점 연구소에 서비스 제공… 환자의 진료 확장 토대 마련

안경렌즈 및 안과기기 분야의 선도 제조기업인 Zeiss Vision Care가 지난 3일 미국의 안경원 관리조직인 Medical Eyeglass Center(MEC)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번 협력을 통해 자이스는 MEC의 독점 연구소 및 서비스 제공업체로, MEC는 자이스와 제휴한 독점 안경원 관리조직으로 자리매김했다.

자이스 비전케어 미국법인의 게리 로젠블럼 CEO는 "자이스는 정밀성, 혁신, 그리고 모든 환자의 더 나은 시력을 위한 헌신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며 "자사는 MEC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안경원을 넘어 환자의 전체 진료 여정에까지 이러한 헌신을 확장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MEC의 롭 카츠 CEO는 "이번 협력은 단순한 파트너십을 넘어 임상의 우수성과 운영 실행력을 강력하게 결합한 것"이라며 "우리는 자이스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광학 혁신 기술과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시스템을 연결하는 통합 플랫폼을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알콘, 미국서 '토탈30 다초점렌즈' 런칭

렌즈 중도 포기자 줄이는 수분 그라디언트 소재의 한 달용 누진렌즈 판매



알콘이 난시 및 노안 환자를 위해 새로운 수분 그라디언트 소재를 적용한 한 달용 다초점 토릭 콘택트렌즈인 TOTAL30 Multifocal for Astigmatism의 미국 출시를 발표했다.

알콘은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토탈30 다초점렌즈는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변할 때 환자들이 콘택트렌즈를 편안하게 착용하도록 돕기 위해 개발된 렌즈로 임상 평가 결과 착용자들은 이를 하루 종일 착용해도 편안함을 느끼는 정도가 10점 만점에 거의 8점에 달했고, 이러한 편안함은 30일차에도 마찬가지였다'고 전했다.

알콘USA비전케어의 크리스틴 브로더슨 부대표는 "알콘은 난시 교정용 토탈30 다초점렌즈 출시를 통해 콘택트렌즈 혁신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며 "우리는 세계 유일의 수분 그라디언트 다초점 토릭 콘택트렌즈인 이번 출시를 통해 업계를 선도하는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가장 복잡한 시력 문제를 해결하려는 회사의 노력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그는 "노안 환자의 콘택트렌즈 중도 포기율은 40세 미만 착용자보다 4배나 높고, 난시성 노안 환자 중 콘택트렌즈만 처방받는 경우는 7%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스타 서지컬社 'EVO ICL' 400만개 판매

레이저 굴절수술보다 인공수정체 삽입술 선호 영향으로 판매 고공행진



인공수정체(IOL) 시장을 선도하는 STAAR Surgical사의 시력교정용 EVO ICL 제품군이 전 세계에서 400만개 이상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시력교정이 세계적으로 레이저 기반 굴절수술에서 벗어나 인공수정체 삽입술로 전환하는 중요한 이정표로, 이번 판매 성과는 굴절 시력교정이 렌즈에 기반한 솔루션이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안과의사와 환자들이 각막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이고 최소 침습적인 치료법을 모색함에 따라, EVO ICL은 전 세계 시장에서 점점 더 선호되는 선택지가 되고 있다.

스타 서지컬의 데보라 앤드류스 임시 공동 최고경영자 겸 최고재무책임자는 "400만개 이상의 ICL 판매는 우리 회사에 매우 중요한 지표"라며 "이러한 성과는 우리의 EVO ICL 플랫폼의 우수성과 환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렌즈보다 굴절 교정으로의 업계 전반의 변화를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백내장 수술 통증 억제약 3상 시험

해로우社, 미 FDA에 수술 후 염증 및 통증 억제하는 트리에센스 IND 신청



미국의 대형 제약업체인 Harrow사가 지난 3일 백내장 수술 후 눈의 통증을 억제하는 점안액 TRIESENCE 40㎎/㎖의 3상 시험을 위해 식품의약국(FDA)의 IND 승인을 요청했다.

이번 3상 연구는 백내장 수술을 받는 환자에게 트리에센스의 안전성과 효능을 평가하기 위해 설계된 무작위 배정과 위약 대조, 이중 맹검, 다기관 임상시험으로 환자 등록은 오는 2분기에 시작될 예정이다. 트리에센스는 FDA 승인을 받은 무방부제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니드 안약으로 백내장 수술 후 염증 및 통증 억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IND란 '임상시험계획 승인신청'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특정 의약품을 사용해 임상시험을 할 수 있도록 허가 당국으로부터 공식적인 심사와 승인을 밟는 절차다.

중국, 콘택트렌즈시장 특별 점검

하얼빈 시장감독국, 청소년 시력보호 위해 안경원 등서 판매 이력 추적



중국의 하얼빈 시장감독국이 새 학기에 맞춰 학생들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게 안경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콘택트렌즈 특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중국품질뉴스네트워크」에 따르면, 감독국 집행관들은 지난달 28부터 오는 18일까지 관할 구역 내 안경원의 사업자 자격과 제품 등록증, 구매 검사 및 판매 이력 추적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등 잠재적인 안전 위험 요소를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안경원 검안 장비의 구매와 교정 과정을 엄격하게 검증해 사업 운영을 근본적으로 규제해 학생들의 시력 안전을 확보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감독국의 관계자는 "이번 특별 검사는 안경시장을 엄격하게 조사·규제해 청소년들의 시력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우리 감독국은 앞으로도 안경시장의 감독 강화와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해 학생들의 건강한 시력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필로, 인스펙스 주식 추가 인수

25% 이어 5% 추가 매입… 총 29.99% 지분 확보 속 회사 인수는 미지수

글로벌 아이웨어 기업 Safilo 그룹이 지난달 20일 영국인수규정(UK Takeover Code) 8.3조에 따른 거래공시와 더불어 Inspecs 그룹의 추가 주식을 인수했다고 발표했다.

사필로에 따르면, 이번에 인수한 주식은 인스펙스 발행 주식 총수의 약 5%로 총 인수 대금은 약 430만파운드(약 85억원)다. 앞서 사필로는 지난해 12월 인스펙스 주식의 25%를 인수했는데, 이번 인수로 사필로의 인스펙스 지분율은 총 29.99%가 됐다.

그러나 인스펙스 측은 사필로의 그룹 전체 인수를 거부했고, 사필로 역시 지난해 12월 15일과 18일의 공지를 통해 '그룹 및 그룹과 협력하는 모든 개인은 윤리강령 제2.8조에 명시된 제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사필로의 인스펙스 인수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혈당과 안구 질환은 '이웃사촌'

英 전문지, 당화혈색소 수치 6.5% 미만 시 망막병증 발생률 저하 보도



최근 영국에서 실시한 대규모 연구 결과, 초기 A1c 수치가 6.5% 미만일 경우 눈과 신경 합병증 발생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의료진들에게 혈당 관리 강화와 망막병증을 모니터링 할 것을 촉구했다. 새로 진단받은 2형 당뇨병(T2D) 환자 17만 2천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관찰 연구에 따르면, 당화혈색소(HbA1c) 수치가 6.5% 미만의 비당뇨병 범위로 유지될 때 망막병증과 신경병증 발생 위험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뇨병 및 합병증 저널」에 지난 2일 발표된 해당 연구 결과는 혈당 수치가 상승함에 따라 이러한 미세혈관 합병증의 위험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며, A1c가 9.6%를 초과할 때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연구팀 관계자는 "최신 임상 지침은 당뇨병 관리를 혈당보다 개별화된 접근 방식을 권장하고, 다인자적 위험 감소와 혈당 강하와는 무관하게 효능이 입증된 새로운 치료법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며 "조기진단 시점부터 혈당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향후 합병증 예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 HbA1c 수치가 48.0mmol/mmol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수치에서 항고혈압제 복용이 항고혈압제를 복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망막병증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News



이스트소프트, MWC26서 AI 서비스 사례 제시

AI 서비스 전문기업 ㈜이스트소프트(대표 정상원)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통신 박람회 MWC26에서 실시간 대화형 AI 휴먼 서비스 '페르소 인터랙티브'를 선보이며 부스 운영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현장에선 모빌리티 등 도메인별로 세분화된 실증 사례를 제시해 참관객들의 높은 주목을 받았다. 문의 070-8850-8319

케미 안경렌즈, 예술혼 담아내다

이선미 작가, 케미렌즈 4만개 등으로 '취향이 거주하는 공간' 조형물 제작… 인기리 전시

㈜케미그라스(대표 반경민)가 문화예술 갤러리와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서울시 신사동에 위치한 6층 규모의 독특한 형태의 맨션에서 2025년 12월 26일부터 지난 6일까지 개최된 이번 전시회는 '취향이 거주하는 공간'이란 주제로 각 층마다 7명의 작가가 자신만의 미적 세계를 선보여 주목을 받았다.

특히 3층 공간은 '투영하다'라는 테마로 이선미 작가와 케미렌즈의 협업이 이뤄진 작품이 전시됐는데, 이선미 작가는 재활용이 어려운 안경렌즈를 크기와 굴절률을 고려해 하나하나 다듬고 조합해 단순한 재료를 넘어 관계와 개성을 은유하는 예술적 메시지를 담아내 눈길을 모았다.



케미렌즈는 이번 이선미 작가의 공간 연출을 위해 약 4만개의 렌즈를 협찬했는데, 이는 작품의 키워드인 '투영하다'를 시각적으로 강화하는 핵심 요소로 수많은 시선을 축적한 렌즈가 작품의 개념을 물성으로 확장하는 장치가 됐다. 한편 이선미 작가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안경렌즈를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키는 아티스트로 케미렌즈와는 이번 전시뿐 아니라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문의 055)387-3030

다가스, 전 품목 50% 프로모션

안경원의 운영 효율 극대화 목적으로 단행… 코팅 옵션도 할인 적용

대명광학㈜(대표 정병헌)의 다가스가 안경원의 판매 활성화와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모든 제품을 50% 할인 판매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안경원의 운영 효율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고품질 안경렌즈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해 안경원의 판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행사는 누진렌즈, 기능성렌즈, 프리폼 싱글렌즈 등 다가스의 전체 라인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데, 특히 옵션 및 소재 할인까지 동일하게 50%를 적용 판매한다.

또한 다가스만의 독자적인 코팅 기술력도 이번 프로모션의 핵심 요소인데, 내구성이 뛰어난 다이아몬드 코팅을 비롯해 'VG MAX' 'VG BLUE' 코팅은 스크래치 저항성과 초발수 성능, 선명도를 동시에 잡아 안경사들이 제품의 특장점을 고객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다가스의 관계자는 "일선 안경사들께서는 이번 50% 할인 프로모션을 통해 다가스가 보유한 우수한 기술력과 폭넓은 라인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1588-8257

라운즈, 2026 디옵스서 가맹 '쇼쇼쇼'

스마트글라스 체험존 운영과 창업 상담 동시 진행… 가맹 시 백화점 상품권 200만원 제공

아이웨어 서비스기업 ㈜라운즈(대표 김세민·김명섭)가 오는 4월 1일부터 3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대구국제안경전(다옵스)에 참가해 브랜드 홍보와 함께 예비 가맹점주를 위한 현장 상담을 진행한다.

라운즈는 이번 디옵스에서 국내외 최신 스마트글라스 전용 체험존을 특별 운영하고, 별도 공간에서는 방문객이 최신 스마트글라스를 직접 착용한 후 기능을 체험하며, 전문 스태프가 상주해 제품별 특징과 활용법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맹 창업에 관심 있는 안경사를 위한 단계별 특별 이벤트도 함께 진행되는데, 사전 상담 예약을 신청한 안경사에게는 기다림 없는 1:1 체험 패스트트랙 코스가 제공되고, 현장에서 가계약을 체결한 안경사에게는 오픈 시점에 따라 3개월 이내에는 300만원, 6개월 이내에는 200만원의 백화점 상품권 혜택을 제공한다.

한편 라운즈 부스 상담 예약 및 자세한 이벤트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www.rounzfc.com)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의 070-8850-8319

쿠퍼비전, 김현주 신임 대표 취임

김현주 대표, "건강한 회사 문화 조성과 지속 성장 기여할 것"

쿠퍼비전코리아㈜의 김현주 신임 대표〈사진〉가 지난 3월 3일부로 공식 취임했다.



쿠퍼비전코리아는 김현주 대표의 합류가 한국시장의 성장 가속화와 전략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쿠퍼비전코리아는 그동안 인기를 모았던 마이데이 브랜드가 올해 상반기에 '마이데이 멀티포컬' 출시를 앞두고 있어 신임대표 선임과 함께 사업확장의 중요한 모멘텀을 맞고 있다. 김현주 대표는 "업계 경험을 바탕으로 쿠퍼비전코리아의 지속 성장을 이루는데 기여하고, 조직과 함께 더 건강한 회사문화를 만들겠다"며 "올해 마이데이 멀티포컬 출시를 통해 한국시장에서의 전략적 포지션을 더욱 공고히 하고, 고객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현주 대표는 소비재와 헬스케어 산업 전반에서 국내외 시장을 두루 경험한 여성 리더로 특히 콘택트렌즈 분야에서 18년의 깊은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외 시장과 글로벌 조직을 이끄는 리더십으로 다양한 비즈니스 성과를 달성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문의 1688-5401

J&J, 서울서 '콘택트렌즈 리더즈 서밋'

용산 드래곤시티호텔서 콘택트렌즈 산업 미래전략과 세계 트렌드 공유

㈜한국존슨앤드존슨비전(대표 이정현)이 안경사를 대상으로 '2026 코리아 콘택트렌즈 리더즈 서밋'을 준비 중이다.

오는 25일 서울시 용산구 드래곤시티 호텔 한라홀에서 개최되는 이번 서밋은 콘택트렌즈 산업의 미래 전략과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자리로, 세계 트렌드의 흐름과 기술의 진보, 고객 경험의 변화를 아우르는 통찰의 장이 될 전망이다.

미래의 특화된 경쟁력을 확인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선점하기 위해 개최되는 이번 서밋엔 300여 안경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문의 acuvueprofed@its.jnj.com

돌리 블랙, 오프라인서 판매 신기록

기존 신제품 대비 20배 빠르게 판매… 3월에 '돌리 베이지' 추가 런칭

글로벌 뷰티테크 기업 ㈜피피비스튜디오스의 대표 브랜드 '하파크리스틴'이 베스트셀러 '돌리' 시리즈의 신규 컬러인 '돌리 블랙'을 런칭, 별도의 온라인 프로모션 없이 기록적인 초기 판매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 돌리 블랙은 수많은 아이돌의 '내돈내산' 아이템으로 화제가 되며 '아이돌 렌즈'라는 고유 대명사를 얻은 '돌리' 라인업의 확장판이다.



신제품 돌리 블랙은 지난 6일 정식 런칭 직후 여타 신제품보다 약 20배 빠른 판매 속도를 기록한 '캣티튜드'와 대등하게 흥행 추이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는 대대적인 온라인 마케팅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제품의 디자인과 감도만으로 오프라인 현장에서 이뤄낸 성과여서 제품 자체의 강력한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파크리스틴의 관계자는 "자사는 캣티튜드에서 증명된 브랜드 파워가 돌리 블랙의 흥행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3월 중에 '돌리 베이지' 컬러를 추가로 런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의 02)522-7167

Varsity
바시티

실내에선 안경 실외에선 선글라스

바시티 변색렌즈

Trevention

트리벤션

비구면 설계의 스핀방식

- UV를 100% 차단해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합니다.
- 기존 구면에서 비구면으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 전면 스핀코팅 방식을 적용해 렌즈의 두께가 얇습니다.
- 기본 변색렌즈보다 빠른 변색속도와 안정적인 성능

업그레이드 스핀코팅 비구면설계로 더 선명하게!

01 스핀코팅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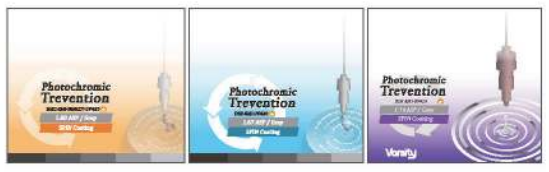
Varsity Spin Coating method



- 농도 균일 (80% 변색)
- 기존보다 빨라진 속도
- 뛰어난 내구성

02 비구면설계

Varsity aspherical design



1.60 ASP	1.67 ASP	1.74 ASP
G B	G	G

- 성능은 올리고 가격은 그대로
- 구면보다 선명한 시야
- 구면보다 얇은 두께

(주)데코비전 본사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로95번길 70, 301호
TEL 02-335-7077

(주)데코비전 부산지점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 585, 건설기술회관 2층
TEL 051-508-7078

DEKO VISION

‘플럼에디터’, 선글라스 ‘드레이크’ 런칭

팬텀옵티칼, 실루엣 • 디자인 • 컬러 3색 매력의 신상 선글라스에 관심 고조

㈜팬텀옵티칼(대표 장용찬)의 플럼에디터가 선글라스 신제품 ‘드레이크(DRAKE)’ 시리즈를 출시했다.

세로로 좁고 가로로 긴 비정형 캣츠아이 실루엣의 플랫바 선글라스인 드레이크는 플랫바 렌즈의 디자인과 서로 다르게 가공된 아세테이트 시트가 만나 레이어드된 컬러 깊이감과 독창적인 시각적 매력을 선사하고 있다.

회사의 관계자는 “렌즈와 프런트의 조화로운 대비가 현대적이면서 세련된 분위기를 완성한 드레이크 템플에는 플럼에디터의 ‘P’를 입체적으로 형상화한 메탈 심볼을 적용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고급스럽게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의 070-4257-6102

케어링, 끌로에 새 캠페인은 ‘자연과 여성’

세련미 ‘주디’ • 은은한 ‘홀리’ • 감성미 ‘우마’ 출시… 엄선 채택한 그라디언트 렌즈 특별

케어링 아이웨어의 끌로에가 자연스러움과 즉흥성, 그리고 현대적인 여성을 기념하는 2026 S/S 시즌의 아이웨어 컬렉션을 선보였다. 브랜드 고유의 가볍고 우아한 무드를 기반으로 부드러운 곡선과 여성스러운 실루엣, 그리고 은은한 빈티지 감성을 더한 선글라스와 옵티컬 프레임을 엄선 출시한 것.



이번 시즌 새롭게 선보이는 ‘주디’ 라인은 끌로에 특유의 정제된 여유로움을 담아낸 컬렉션인데, 슬림한 아세테이트 프레임에 브랜드의 액세서리 라인을 연상시키는 메탈 액센트가 더해져 끌로에 특유의 자연스럽고 세련된 매력을 담아낸다.

또한 ‘홀리’ 라인은 은은한 캣츠아이 프레임과 대담한 메탈 템플이 조화를 이루고, 26년 S/S 런웨이에서 공개된 ‘우마’는 레트로 감성의 메탈 실루엣을 바탕으로 구조적인 아름다움과 즉흥적인 감각의 균형을 섬세하게 해석하고, 우아한 탑 바 디테일과 독창적인 그라디언트 렌즈가 더해져 한층 세련되고 현대적인 매력을 완성했다.

문의 010-6394-7071

시대 이끄는 맞춤형 안경테 ‘브라기’ 인기

하이비젼, 3D프린팅과 AI 결합한 맞춤형 컬렉션… 주문 문의 급상승

㈜하이비젼코리아(대표 황봉옥)에서 전개하는 맞춤형 안경테 브랜드 브라기가 높은 품질과 혁신 기술로 국내 사용자들 사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브라기는 3D 프린팅과 인공지능(AI)을 결합한 맞춤형 안경테 제작 시스템으로, 최근 운영 시스템을 개선해 4세대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돼 실시간 가상 피팅을 통해 사용자의 얼굴 형태와 도수, 다양한 광학 매개변수를 반영해 개인 맞춤형 안경테를 제작하는 것이 특징이다.



브라기의 관계자는 “국내 유명 철강기업의 고위 임원 등 유명인들이 브라기 맞춤형 안경테를 즐겨 사용하고, 안경광학과에서도 차세대 기술 교육을 위해 관련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현재 국내 주요 안경원에서 브라기 시스템에 대한 문의와 계약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 전국 주요 도시에서 손쉽게 브라기 맞춤형 안경 서비스를 만날 수 있다”고 전했다.

문의 1899-7391

프로젝트 프로덕트, 새 캡슐 컬렉션 런칭

착용인의 공감 일으키는 ‘인터루드’ 출시… 안경 미학 새롭게 조명

프로젝트 프로덕트가 2026년 S/S 시즌을 맞아 새로운 캡슐 컬렉션 ‘인터루드’를 공식 런칭했다. 캡슐 컬렉션의 테마인 ‘인터루드’는 곡과 곡 사이에 흐르는 짧은 휴식처럼 빠르게 흘러가는 일상의 소음 속에서 잠시 멈춰 서는 순간을 의미한다.

이번 컬렉션은 삶의 속도를 늦추고, 외부의 자극을 비워내며 오롯이 내면에 집중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결과물로, 기능의 우월함을 강조하기보다 착용자의 감정에 반응하는 조용한 방식으로 공감과 위로를 건네는 ‘정서적 미니멀리즘’에 초점을 맞춰 브랜드 특유의 미학을 새롭게 정립한 것이 특징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인터루드 컬렉션이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조용한 성찰의 시간과 치유의 경험을 제공하는 매개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02)6952-3006

안경존중, ‘브랜드 경쟁력 강화책’ 발표

디지털 임팩트 강화 전략 공개… 소비자 • 소속 가맹점의 로드맵 확정

㈜안경존중(대표 김광영)이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디어 홍보 전략을 발표했다.

그 구체적 실천 사항으로 ‘디지털 임팩트 강화’를 내세운 안경존중은 네이버 블로그 중심의 콘텐츠 허브를 구축, 이를 통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고객과 가맹점주 모두를 만족하는 단계별 로드맵을 수립할 방침이다.

또한 안경존중은 타깃별 맞춤형 메시지를 설정했는데 ▶소비자에겐 ‘내 얼굴을 존중하는 안경 큐레이션’으로 전문 시력검사 및 스타일링을 강조하고 ▶안경사 및 예비 가맹점주에겐 ‘안경사의 전문성을 비즈니스 가치로 전환하는 상생 모델’ 제시와 누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상권 분석 리소스를 통해 신뢰와 수익 안정성을 강조하며 ▶B2B 대상으론 ‘안경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성장 동력’ 등이다.

안경존중의 관계자는 “자사는 특히 전략적 콘텐츠 카테고리에 안경 상식부터 시력 관리, 디자인 트렌드 등 신뢰도 높은 정보성 콘텐츠인 ‘전문가 인사이트’와 투명한 창업 절차, 프랜차이즈 특장점, 실제 가맹점주 인터뷰 등으로 구성된 ‘파트너십 스토리’, 또한 지역별 매장 소개를 통해 각 지점의 전문성과 차별화된 VMD를 강조하는 ‘로컬 아카이브’ 등을 구성할 계획”이라며 “특히 매체 노출 시 전문성을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운영 방식을 보여주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문의 010-8127-9938

으뜸50 ‘송탄점’ 대형상가서 개원

롯데시네마 빌딩 1층서 신바람 오픈… 본부는 가맹점 성공 전략 지속 추진

㈜으뜸50안경(대표 정영길)이 매서운 가맹 열기를 과시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정식으로 개원한 송탄점은 경기도 평택시 관광특구로에 위치한 1층의 50㎡(약 15평) 규모의 안경원으로 롯데시네마 송탄점의 대형상가 내 위치해 편리한 주차 등 각종 특장점을 가진 가맹점이다.



으뜸50안경 체인본부의 관계자는 “언제나 변함 없이 자사에 보내주시는 안경업계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자사는 앞으로도 가맹점이 만족하는 전략 개발과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전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의 1522-1584

룩옵티컬 루키 모델 연속 품절 사태

무신사 안경테 1위 기록한 모델들 온 • 오프라인서 품절… 셀럽들 발동동

패션 온라인 플랫폼 무신사에서 안경테 부문 1위에 올랐던 룩옵티컬 ‘루키’의 주요 모델이 현재 품절을 기록할 만큼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무신사 랭킹 1위에 올랐던 루키의 대표 모델 LC5994는 룩옵티컬 온•오프라인 전 채널 통합 베스트 1위를 차지하며 현재 품절 상태다. 또한 룩옵티컬 전국 오프라인 매장 베스트 1위 모델인 LC6002도 빠르게 품절되며 높은 인기를 입증했는데, 두 모델의 품절 이후 소비자 관심은 LC5997, LC6001 모델로 확산되며 해당 제품들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룩옵티컬의 관계자는 “루키는 룩옵티컬의 다양한 제품군 중 초저가 라인으로 출시됐지만 착용감과 품질 완성도에 대한 기준만큼은 그대로 유지한 제품으로 이러한 점을 소비자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품절된 LC5994와 LC6002 모델은 곧 추가 입고되며, 이를 계기로 루키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1599-3016

서울시안경사회 보수교육 4월 7~8일 실시

영등포구민회관서 보수교육과 광학전 동시 개최… 출석은 개인 휴대폰으로 체크

서울시안경사회(회장 김원철)가 오는 4월 실시하는 '2026년도 상반기 안경사 보수교육'에서도 광학전을 개최한다.

4월 7일부터 8일까지 서울시 영등포구민회관(영등포아트홀, 공연장)에서 개최되는 올해 보수교육엔 서울시안경사회 산하 25개 분회의 약 5,000여 안경사가 참석할 예정인데, 이때 약 30개 업체가 참여하는 광학전을 개최하는 것.

서울시안경사회의 관계자는 "올해 보수교육의 출석 체크는 처음으로 회원 개인 휴대폰을 이용해 QR코드로 체크할 예정"이라며 "사무국은 출석 체크의 원활함을 위해 미리 등록방법 등 관련사항의 링크 주소를 별도로 회원들에게 문자로 전송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의 02)393-3206

보수교육 일자		보수교육 대상 분회
4.7 (화)	오전	도봉구, 동대문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오후	금천구, 동작구, 서대문구, 성북구, 영등포구, 은평구
4.8 (수)	오전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마포구, 성동구, 송파구
	오후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노원구, 서초구, 양천구

OVDRA 국제지부, 필리핀 대학교수에 시기능 훈련

CEU대학 교수 2인에 이틀간 시기능훈련 집중 교육… 수강 교수들 만족

OVDRA Korea 국제지부(한국시기능훈련교육협회, 이사장 신효순)가 아시아 최고 검안 명문대학 중의 하나이자 유일하게 검안의사 학위를 수여하는 필리핀 센트로에스칼라대학교(CEU) 검안대 교수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CEU 검안대학에서 소아 검안학과 시기능훈련 교과목을 담당하는 Dr. Sherwin WB Suarez와 Dr. Ericka GG Olazo 교수가 지난달 23일부터 28일까지 총 48시간 집중 시기능훈련 연수프로그램을 전개했다.

연수에 참여한 셔윈 교수는 "이론과 실습 과정을 통해 환자들의 변화를 직간접으로 체험한 이번 연수에서 시각과 뇌의 가소성을 다루는 시기능훈련의 매력에 더욱 빠지게 됐다"며 "우리 검안대학에 교육과 임상에 적용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뿌듯하다"고 연수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했다.

한편 OVDRA Korea 국제지부는 검안사로 구성된 세계적인 명성과 권위를 자랑하는 시각발달재활검안협회의 아시아 최초의 국제지부로 표준화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시기능관리, 시기능훈련, 시기능재활 전문가를 양성하고, 올해 2026년도 회원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

문의 070-8274-3280

안경사평생직업교육학원 정규반 모집

4월 오전반, 수요반, 토요반, 일요반에 사전 수강생엔 다양한 특전 제공

㈜아이옵트코리아의 안경사평생직업교육학원(원장 김석주)에서 4월에 개강하는 정규반을 모집하고 있다. 해마다 안경사 국가시험 100% 합격률을 자랑하는 전통의 안경사평생직업교육학원은 4월 개강반 수강생에게 ▶개강 전 수강 신청 시 동영상 강의 수강 혜택 ▶기본이론 교제 무료 증정 ▶문제풀이 동영상 강의 제공 ▶모의고사(10회) 무료 응시 혜택 ▶온·오프라인 동시 강의 등의 특전을 제공한다. 편성반은 ▶4월 1일 개강하는 오전반 ▶4월 1일 개강하는 수요반 ▶4월 4일 개강하는 토요반 ▶4월 5일 개강하는 일요반 등 4분류로 나눠져 있다.

문의 02)773-1513

편성반	개강일	요일	수업시간	수강료
오전반	4월 1일	월 / 수 / 금	10:00~13:00	385 만원
수요반	4월 1일	수요일	10:00~18:00	
토요반	4월 4일	토요일	10:00~18:00	
일요반	4월 5일	일요일	10:00~18:00	

'열심히 일한 당신, 여행 떠나라!'

서울안경사회, 회원에 휴가지원사업 참여 홍보… 개인은 소액 자비 부담

서울시안경사회(회장 김원철)에서 근로자의 휴가 지원사업을 소속 분회를 통해 회원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이번 휴가 지원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와 국내 여행 활성화를 목적으로 정부·기업·근로자가 공동으로 비용을 조성해 근로자의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은 근로자가 일정 금액을 부담하고, 정부와 기업이 지원금을 지원해 실질적인 휴가비 혜택을 받는 구조로 운영되는데,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근로자로



특히 소상공인은 대표자와 임원의 참여가 가능하다.

사업 참가 신청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세부사항은 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1670-1330

말레이시아서 'K-옵틱 글로벌 캠프'

마틴, 안광과 재학생과 안경사 대상으로 해외 안경시장 참가단 모집

글로벌 스튜디오 마틴에서 안경광학과 재학생과 안경사 대상으로 'K-옵틱 글로벌 캠프 2026·쿠알라룸푸르 에디션'을 개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6월 28일부터 7월 25일까지 4주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진행되며, 선착순 6명을 대상으로 영어회화 교육 및 말레이시아 안경 유통시장 현장 이해와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을 목표로 한다. 이번 에디션은 단순한 어학연수형 프로그램이 아니라 참가자들이 현지 안경 환경을 직접 체험 경험하는 현장형 글로벌 프로그램으로 실시된다.

주최 측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오전에는 개인 수준에 맞춘 일반 영어회화, 오후에는 현장 실전영어와 함께 매장 관찰과 현지인 인터뷰, 리서치 활동을 수행한다.

글로벌 스튜디오 마틴의 관계자는 "이번 캠프는 현업에 종사하는 참가자들에게 기존 어학연수와는 다른 밀도 높은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캠프의 참가비는 프로그램과 숙박 포함해 360~420만원이며, 숙소는 KLCC 내 고급 콘도미니움형 코리빙 공간으로 항공과 식비, 여행보험, 개인 비용은 별도다.

문의 http://www.koptic.kr 및 카카오톡 ID: koptic

강원대 시력교정 전문가 그룹, 임상사례 세미나

시력교정 전문가 그룹 주최로 '다양한 안기능이상 처방 사례' 강연

강원대학교 시력교정 전문가 그룹의 '제7차 임상사례 세미나'가 지난달 25일 서울시안경사회 교육센터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20명 이상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는 '다양한 안기능이상 처방 사례'라는 콘셉트로 다양한 강연이 전개돼 참석자들의 높은 만족을 이끌었다.



강원대 시력교정 전문가 그룹의 대표인 새로안안경 오성진 원장은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소통하는 분위기로 열린 오늘 세미나는 무엇보다 학술적인 열기가 뜨거웠고, 다음 8차 세미나는 오는 6월 중순경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의 031)275-6040

신성대 안광과 성인반 첫 동문회

성인학습자반 설치 후 열린 모임 훈훈… 초대 동문회장에 김운학 씨 선출



신성대학교 안경광학과(성인학습자반(학과장 류동규))가 지난달 28일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일원에서 학과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첫 동문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에 개최된 첫 동문회는 단순한 친목 도모를 넘어, 학과와 동문회가 함께 안경사로서의 꿈을 실현해 나가는 '재탄생'의 자리로 공표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에는 동문회 발전을 위해 헌신할 김운학 초대 동문회장과 동문회 출범을 위해 애쓴 임원단, 그리고 자리를 빛낸 동문 및 교수진 전원에게 뜨거운 감사의 박수가 쏟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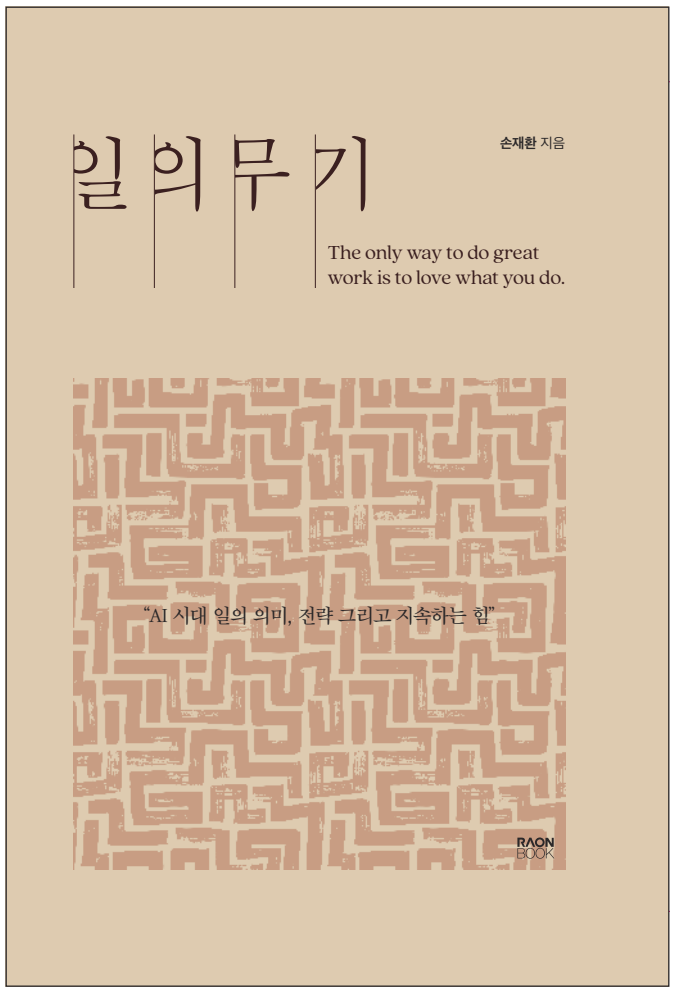
문의 041)350-1280

각종 매체에 보도된 안경 종합뉴스



▶'AI 안경'이 대답하고 '로봇폰'은 사람 따라 움직이며 촬영(동아일보/ 3월 3일)
▶무안군 드림스타트, 취약계층 아동 '눈 건강지킴이' 안경 지원(매일일보/ 3월 3일)
▶재벌은 라식 안 한다? 이재용 • 정의선 • 젠슨황 다 안경 쓴 이유(중앙일보/ 3월 4일)
▶안경, AI 비서가 되다… 눈앞서 펼쳐진 '스마트글라스 대전'(서울신문/ 3월 4일)
▶'필요할 때만 연결' AI 기기로 휴대폰 중독 막는다(세계일보/ 3월 4일)

신간



20대 중반에 개원해 35년간 한결같이 안경원 운영에만 전념해온 손재환 대표 원장.
손재환 대표 원장의 9번째 저서인 「일의 무기」는 갖가지 어려움을 용기와 성실함으로 이겨낸 손재환 대표 원장의 자전적 경영서이다.
특히 손재환 대표 원장은 이 저서에서 자신에게 일이 주어진 난관으로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을 때 이를 극복해 찾아오는 즐거움, 즉 일이 진정으로 즐거움을 준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고수의 경지'에 오르고, 이때부터 인생 전체가 긍정 에너지로 바뀐다고 말하고 있다.
이로써 자전적 경영 지침서인 「일의 무기」는 고단한 삶과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용기를 심어주는 희망의 메시지가 가득한 보감(寶鑑)의 저서이다.

Part 1 - AI 시대에 왜 일하는가?
Part 2 - 일 잘하는 고수는 이것이 다르다
Part 3 - 바짝 벌어서 평생 놀 수 있을까?
Part 4 - 나의 일의 가치를 높이는 14가지 질문
Part 5 - 어떤 사람이 되어, 누구와 일할 것인가

손재환 지음 | 라온북 발행 | 260쪽 | 22,000원

손재환 대표 원장 주요 저서



장사 교과서 **'사장편'**
손재환 지음 | 라온북 발간 | 276쪽 | 18,000원



장사 교과서 **'매장편'**
손재환 지음 | 라온북 발간 | 297쪽 | 1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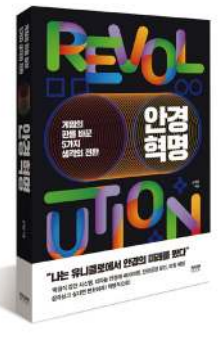
장사 교과서 **'고객편'**
손재환 지음 | 라온북 발간 | 299쪽 | 18,000원



장사 교과서 **'직원편'**
손재환 지음 | 라온북 발간 | 298쪽 | 18,000원



'안경사의 기술'
손재환 지음 | 라온북 발간 | 294쪽 | 29,500원



경영학 원론 **'안경혁명'**
손재환 지음 | 라온북 발간 | 257쪽 | 15,000원



한국형 탈무드 **'일류 아빠의 생각'**
손재환 지음 | 라온북 발간 | 255쪽 | 15,000원



흘러내리지 않는 **'안경피팅의 정석'**
손재환 지음 | 라온북 발간 | 256쪽 | 38,000원

'까르뱅'에는 하금테 특유의 클래식이 가득



CARVEN의 MODE 컬렉션은 하금테 특유의 클래식함이 얼굴형을 더 또렷하게 잡아주고, 얇은 금속 라인과 가벼운 착용감으로 장시간 착용에도 편안함을 제공한다. 또한 티타늄으로 프레임을 제작해 더욱 견고한 내구성을 자랑하는 이 컬렉션은 라운드 보스턴형 디자인으로 부드러운 곡선 라인과 두께감 있는 프레임에 조화를 이루고 있다. 특히 53㎜의 림 사이즈는 남성 고객에겐 편안함을, 여성에겐 오버핏 안경으로써의 클래식한 감각을 연출해 준다. **투페이스옵티칼 ‖ 문의 053)353-7851**

Entertain-ment



지적인 카리스마는 뿔테로 완성

가수 양준일이 깊이 있는 눈빛과 지적 매력이 돋보이는 근황을 공개하며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양준일은 지난 9일 자신의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인생 공부 오늘도 같이 재미있게 하루 양만 풀어나가요'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특히 양준일은 평소의 화려한 퍼포먼스와는 상반되는 검은 뿔테를 매치해 스마트하면서도 차분한 매력을 선보였다.

거울 앞 셀피 망중한 박소담 숏컷에 안경은 영화 한 장면



배우 박소담이 독보적인 패션 감각과 신비로운 분위기를 발산하며 근황을 전했다. 박소담은 지난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직 코트를 조금 더 입을 수 있는 날씨'라는 글과 함께 근황이 담긴 사진 여러 장을 게재했다. 이를 통해 박소담은 거울 셀피를 촬영 중인 모습을 선보였는데, 평소 보여주던 맑고 깨끗한 이미지에 '지적인 힙함'을 더해 팬들의 시선을 모았다.

파리 밝히는 배우 기은세 안경으로 차도녀 굿 연출



배우 기은세가 파리에서 찍은 화보 같은 일상을 공유하며 '패션 아이콘'의 면모를 과시했다. 기은세는 지난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자벨 마랑의 밤은 펑키댄스'라는 글과 함께 파리의 에펠탑을 배경으로 한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서 오버사이즈의 투 브리지 안경을 착용한 기은세는 블랙 오버핏 재킷과 레더 팬츠를 매치해 시크하면서 차가운 도시 여자의 매력을 극대화했다.



NCT드림 제노가 즐겁게 착용하는 '플럼에디터'

각종 방송서 플럼에디터 그루브 착용… 고밀도 특수 소재로 멋과 착용감 '굿'

그룹 NCT드림의 멤버 제노의 안경이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근래 제노는 각종 방송활동과 개인 SNS 등을 통해 상하 폭이 짧으면서 가로로 긴 신스퀘어 림 스타일의 도수테를 선보이고 있는데, 이는 플럼에디터의 그루브 컬렉션이다.

고밀도 특수 소재인 '콤프레시드 아세테이트'를 프런트 소재로 사용해 장시간 착용에도 형태 변화가 적은 이 컬렉션은 인체에서 발생하는 열이나 땀에도 안정적인 유지가 가능하다. 템플은 피팅이 용이하면서도 얼굴 옆면에 안정적으로 밀착되는 티타늄 소재의 C자 구조의 플로우 힌지가 적용돼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한다.

핑크 레깅스가 어울리는 효민 선글라스로 감각 스타일 완성

가수 효민이 브랜드 관련 팝업 공간에서 찍은 사진으로 근황을 공개했다. 효민은 지난 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NikeSKIMS'라는 브랜드 콜라보 이름과 함께 거울 셀피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 효민은 연한 핑크색 브라탑과 레깅스를 세트로 맞춰 입고 락커룸 벤치에 앉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실내 공간임에도 블랙 선글라스를 착용해 눈길을 끌은 그는 신발은 광택감이 도는 메탈릭한 소재의 운동화를 선택해 전체적인 스타일링에 변주를 주었다.





밀라노 밤거리 밝히는 이종석

꾸안꾸 스타일 '만찢남' 미소… 짙은 선글라스 눈길

배우 이종석이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최신 근황을 전하며 글로벌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이종석은 지난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별다른 멘트 없이 이탈리아 방문 중 찍은 사진들을 공개했다. 사진에서 그는 밀라노의 명소인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 갤러리아'를 배경으로 아이처럼 해맑은 미소를 짓고 있다.

블랙 오버핏 재킷에 화사한 옐로우 컬러의 캡모자를 뒤로 눌러써 '꾸안꾸'의 정석을 보여준 이종석은 여기에 짙은 선글라스를 매치해 밀라노의 분위기에 완벽히 녹아든 모습을 보여주었다.



홀로서기 나선 가수 보아 일본서 모처럼 여유 만끽

가수 보아가 25년간 몸담았던 SM엔터테인먼트를 떠나 새로운 시작을 알린 가운데, 일본에서의 평화로운 근황을 전해 팬들의 반가움을 사고 있다. 보아는 지난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별다른 멘트 없이 일본 도쿄의 상징인 도쿄타워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

Quiz

	3	1		7				
	5	8	4					
	4	6	3		5			8
		9			6		4	3
6	7	4					8	
				4	9	1	6	
		5		2	4	8		6
		2	8					1
	1			5	3	4	2	9

SUDOKU 정답 〈지난호〉

4	7	3	1	9	6	8	2	5
1	2	5	3	8	4	6	7	9
6	9	8	5	2	7	3	4	1
8	5	4	6	1	9	2	3	7
7	6	1	2	3	8	9	5	4
9	3	2	4	7	5	1	8	6
5	4	9	8	6	3	7	1	2
3	1	7	9	5	2	4	6	8
2	8	6	7	4	1	5	9	3

SUDOKU 기초 공략

▶ 스도쿠 게임 규칙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간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간다.
3. 가로 세로 3×3칸의 모든 블록에도 1~9까지의 숫자가 하나씩 들어간다.

daing MEDIA (두잉미디어) Optic Weekly
우(04501) 서울시 중구 만리재로 185, 101동 1106호 (만리동2가, KCC파크타운)
대표전화 : (02)-313-5585 FAX : (02)-363-0345
이메일 : opticweekly@naver.com 홈페이지 : www.opticweekly.com
취재국 / 영업국 / 광고신청 / 구독신청 : (02)-363-3885
등록일 : 2010년 1월 6일 등록번호 : 서울 다09905(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신청 : 우리은행(1005-004-387851) 예금주 : 두잉미디어
발행 : 두잉미디어 옵틱위클리 발행인 : 김태용 간별 : 격주간 구독료 : 년24,000원 1부 : 1,000원



국내 최대 안경체인
다비치안경과 함께 하세요!

DAVICH

1 **가맹점 상생**을 위해 노력합니다.
최대 3억 창업 대출 프로그램, 업계 최초 법률 상담 지원

2 **안경사 전문 교육**에 앞장 섭니다.
사관·공채를 통한 전문 인재 보급, 전문적인 교육 시스템

3 **지역핵심 상권**을 찾아 드립니다.
전문적인 상권 분석을 통해 매장 오픈

4 **가맹점의 매출 성장**을 위해 힘씁니다.
전략적 마케팅 활동과 맞춤 컨설팅 시스템 제공







다비치안경은 **전문적이고 다채로운**
고객 경험을 제공합니다.

DAVICH 릴레이 오픈중

2026
- 2월 신제주연북로점
- 3월 인천불로점
- 포항원동점

[오픈예정지역] 해당지역 안경사님께 오픈 우선권을 드립니다.

서울 강동구 : 상일동역 / 강동구청역 강남구 : 강남구청역 / 강남역 / 수서역 / 논현동 강서구 : 까치산역 / 화곡역 / 신방화사거리 관악구 : 낙성대역 / 난곡사거리 광진구 : 건대입구역 / 자양사거리 / 군자역 / 아차산역 구로구 : 신도림동 테크노마트 / 구로구청사거리 / 개봉역 / 대림역 금천구 : 가산디지털단지역 노원구 : 수락산역 / 상계역 / 마들역 / 중계학원가 동대문구 : 회기역 / 청량리역 / 전농동사거리 동작구 : 상도역 / 흑석역 / 남성역 / 노량진역 / 장승배기 마포구 : 공덕역 사거리 / 합정역 / 망원동 / 디지털미디어시티 서대문구 : 홍제역 / 가좌동 모래내시장 서초구 : 반포동 고속터미널 / 교대역 / 남부터미널 / 양재 성동구 : 행당동 무학여고사거리 / 성수동 성북구 : 석계역 / 석관동 / 종암동 / 성신여대입구역 / 한성대입구 송파구 : 문정동 법조타운(가든파이브) / 거여역 / 개롱역 영등포구 : 당산역 / 영등포구청 은평구 : 은평뉴타운 종로구 : 종각 / 종로3가 / 창신동 / 대학로 / 경복궁역 중구 : 을지로4가역 / 신당역 / 약수역 사거리 중랑구 : 신내동 / 동부시장 영남 부산 : 센텀시티역 벡스코 / 부산시청앞 / 연산동 / 명지국제신도시 / 기장정관 울산 : 화봉동 대구 : 지산동(지산역 사거리) / 침산동 / 화원삼거리 경북 : 구미 옥계동 / 문경 경남 : 진주 평거동 경기 광명 : 광명KTX역 / 철산역 / 소하동 부천 : 소사본동 / 송내역 성남 : 모란역 / 정자역 / 오리역 시흥 : 장현지구 / 목감지구 안산 : 선부동 / 고잔동 안양 : 범계역 / 인덕원 용인 : 성복동 / 보정동 / 구성마북지구 / 기흥구청 / 역북지구 의정부 : 회룡 인천 : 동춘동 / 신현동 / 석남동 / 소래포구역 / 서구청 / 서창지구 / 영종도 / 제물포 파주 : 금촌동 / 금릉역 / 운정지구 / 문산읍 고양 : 탄현역(중산동) / 주엽역 / 마두역 / 풍동지구 / 삼송지구 김포 : 걸포지구 과천 : 과천시청역세권 남양주 : 별내신도시 / 도농역 동두천 : 지행역상업지 양주 : 회천지구 양평 : 시장~터미널 의왕 : 오전동(의왕 이마트 앞) 화성 : 화성시청신도시 안성 : 공도 강원 홍천 대전 관평동 / 도마동 / 월평동 충남 배방읍 아산역 / 천안행정타운 광주 금호지구 / 일곡지구 / 봉선동 / 운암동 전남 여수 웅천동

[브랜드 대상 내역] 소비자가 직접 선택한 다비치안경!

가맹상담문의 010-4087-0250 - 이메일 문의 가능합니다 - jewdas305@davich.com

다비치 안경 다비치 보청기 다비치 홀딩스 KVISION

Optic Weekly
Since 1993
www.opticweekly.com
안경은 무조건 편해야 한다! 주간 옵틱위클리 2026년 3월 15일 발행 (388호)
ABC 부수인증매체 한국ABC협회

JIN OPTICAL 국내 최저가 공급 www.opticdomarker.com
도수렌즈 완제품 국내 최다보유 ● CR 평면, 밀러렌즈, 각종 평면렌즈, 다량 보유
취급 품목 CR39, 중굴절, 고굴절, 중누진 변색렌즈, 고굴절 청광 차단렌즈
중·고굴절 컬러 초발수 렌즈 등 각종 Rx렌즈 취급
진광학 | 사업자등록증 확인 후 선입금 • 현금 판매만 가능, 5만원 이상 택배비 무료
TEL. 02-773-1001, 752-2810 • FAX. 02-757-8173, 775-1002

www.diart-smartglass.com
Di Art

The NEXT OPTICAL Store
안경원의 미래, 지금 시작됩니다!
스마트안경 시대의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AI 시대, 스마트폰 잇는 다음 혁신은 '스마트 안경'
안경, AI 비서가 되다...눈앞서 펼쳐진 '스마트글라스 대전'
쓰고 보기만 하면 번역까지… '스마트 글라스' 시장 쟁탈전
AI 안경, 거대 기술의 격전지 부상... '포스트 스마트폰' 시대의 서막인가?
[4차산업뉴스] 2030년까지 AI 스마트글라스 시장 연평균 47% 성장
스마트안경 대중화 본격 시작… 중국 테크 기업까지 가세
스마트 글라스, AI 시대를 현실로 연결하다
스마트폰 대체할 새 기기…'스마트 안경'을 선점하라

ChatGPT Gemini AI 어시스턴트
구글 이메일/캘린더
사진 촬영
동영상 촬영
전화 받기
실시간 통역
음악 듣기
도보 네비게이션
TALK 카카오톡/맵
보이스캐디

Apple, Meta 등 모든 빅테크 기업이 참전하는 시장성패의 핵심은
'시광학 전문성(Optical Expertise)'
스마트글라스의 'Last Mile'은 오직 안경원만이 완성할 수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성장할 스마트 글라스, 모두 함께 성장할 기회입니다.

AI 스마트 안경 공식 판매점 모집

VMD 지원
'스마트 독(Smart Dock)' 파격가 제공과 판매 매뉴얼 지원 (선착순 매장 지원)

상권 보호
시장의 성장에 맞는 광범위한 지역 상권보장

마케팅 지원
본사 온라인 광고 시 '우리 동네 취급점' 우선 노출과 마케팅 집중 지원

교육지원
'테크-옵티션(Tech-Optician)' 전문가 과정 무상 교육 및 공식 인증 현판 제공

제품 안내
공식 판매점 안내
(초기 200호 판매점 한정 혜택)